

최종보고서

2014-07-02-00

# 태권도 9대관 정신 및 기존 정신 리뷰 연구

2014. 12. 26.



# 제 출 문

국기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태권도 9대관 정신 및 기존 정신 리뷰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책임연구원 허 인 욱

#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허인욱 (인하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 산 (전북대학교)

남덕현 (고려대학교)

# 목 차

---

I . 머리말 .....	1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	2
1)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방향 .....	3
2. 연구방법과 추후 논의점 .....	5
1) 연구방법 .....	5
2) 추후 논의점 .....	7
II . ‘태권도’ 에 대한 이해 .....	11
1. 태권도의 성립 과정과 정체성 .....	12
2. ‘태권도’ 의 본질에 대한 규정 변화 .....	27
1) 1960년대 이전의 태권도 규정 .....	27
2) 1970년대 이후의 태권도 규정 .....	30
III . ‘태권도 정신’ 시대별 추이 .....	35
1. 1960년대 이전의 태권도 정신 .....	37
1) 모체관 설립과 9대관 형성기의 인식 .....	37
2) 9대관의 관훈으로 본 태권도 정신 .....	47
2. 1970년대 이후의 태권도 정신 .....	55
1) 태권도 공공 기관이 보는 태권도 정신 .....	55
2) 연구자들이 본 태권도 정신 .....	60

IV. 맺음말: ‘태권도 정신’ 의 흐름과 그 기준 .....	71
1. ‘태권도 정신’ 의 흐름 .....	72
2. ‘태권도 정신’ 의 정립 기준 .....	74
3. 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 .....	81
 참고문헌 .....	 83

# 표 목 차

---

표 1. 대한태수도협회 제 1회 심사 지정형 .....	16
표 2. 태권도 정의에 대한 간략 내용 .....	32
표 3. 9대 관의 관시(관훈)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	47
표 4. 관훈의 정리 .....	54

# 그림 목 차

---

그림 1. 『화수도 교본』의 발질 서술 .....	22
그림 2. 1970년대 이전의 수련 모습 .....	49
그림 3. 지도관의 단증에 보이는 관시(관훈)와 관원선서 .....	50
그림 4. 1960년 한무관 단체 사진 .....	52
그림 5. 『파사권법』에 보이는 강덕원 도장 내부의 사진 .....	53
그림 6. 안용규가 설정한 태권도 수련과 정신의 관계 .....	64

# 요 약 문

## 태권도에 대한 이해:

1. 청도관(靑濤館), 송무관(松武館), 무덕관(武德館), 조선연무관권법부(朝鮮研武館拳法部), 중앙기독교청년회권법부(中央基督教青年會(YMCA)拳法部)를 모체로 성립 → 6·25이후 모체관에서 파생된 9대관이 태권도협회로 통합.
2. 조선과 오키나와 처지에서 동질감 느낌 선생 세대: ‘일본’ 가라테가 아닌 ‘오키나와’ 가라테 수련, 국내에 전파. 여기에 만주권법과 발질 중심의 우리 전통무예가 융합 → 현대 태권도로 발전

## 태권도 정신의 흐름:

1. 초창기: 선생세대: 무예로서의 특징 강조: 가라테 수련의 경험으로 ‘선수(先手) 없다’ 는 정신 강조 → 화랑도 정신의 도입  
최홍희의 태권도 5대 정신: ‘예의’ · ‘염치’ · ‘인내’ · ‘극기’ · ‘백절불굴’
  2. 9대관 관훈: 개인(ex: 성실, 창의 등등), 사회(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민족사회의 모범이 되자 등등), 국가(ex: 나라를 위한다(國爲) 등등) 차원으로 구분 됨
  3. 공공기관의 정신:
    - ㉓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교본』(1972): 태권도 수련을 통한 수련자의 변화 과정 설명(ex: 수련- 반응력 → 판별력 → 담력 → 자신 등등)
    - ㉔ 국기원 『태권도교본』(1987): 단군신화의 ‘홍익인간’ 정신·화랑들의 ‘화랑정신’ · 불교의 ‘호국정신’ · 유교의 ‘충효사상’ · 도교의 ‘무언실행’ 과 태권도 정신을 연결 → ‘한’ 사상으로 정리- 이후 연구자들의 태권도 정신 설정의 기준으로 작용.
- \* 문제점 : ① 보편적인 개념이 태권도 수련이라는 본질과 관련을 맺는가.  
② ‘한’ 철학의 정의가 불분명

## 태권도 정신 설정 기준

- \* 수련을 통한 정신의 수련이라는 태권도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 가능한가의 여부가 핵심 기준
- \* 태권도 정신은 단순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는 것이어야 하며,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개념 또는 문구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련의 깊이 따라 그 의미를 새롭게 음미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I . 머리말

## I. 머리말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와 ‘정신’이 결합된 합성어로, 태권도를 통하여 형성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가치관을 말한다. 태권도 정신은 수련을 통해, 기술 속에서 체험과 깨달음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태권도의 형성기부터 현재까지 태권도 정신이 어떻게 정의되었고 변화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 1) 연구의 목적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무예로서 동양무예 가운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무예이다.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는데 성실한 사범들의 노력과 다양한 기술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태권도 정신은 철학적인 면이 내포된 개념이지만 사범 개인이나 교본마다 각기 달리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태권도 정신은 ‘호국’, ‘충성’, ‘효도’, ‘무언실행’, ‘정의’, ‘평등’, ‘인격완성’, ‘홍익인간’, ‘평화’, ‘책임감’, ‘천인합일’, ‘심신일여’,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정직’, ‘성실’, ‘정의’, ‘예의’, ‘준법’, ‘평등’, ‘평화’, ‘조화’, ‘합일’ 등등으로 다양하다. 정신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깊이 있는 뜻을 담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용어들이다.

하지만 다양한 용어의 사용은 태권도 수련자들에게 정확한 태권도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혼선을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태권도 지도자들 또한 명확하게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개인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을 태권도 정신이라 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을 가진, 그러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태권도 정신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태권도 정신의 정립과 관련해 그 전제는 태권도가 몸 수련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히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용어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호도나 평화 같은 용어들은 그 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태권도 수련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가치들이다. 과연 태권도 수련을 통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언급된 용어들이 태권도 수련과 관련지어 그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더라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면, 태권도 정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 2) 연구의 방향

### 가. 기존 연구 성과 정리

태권도 정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본이나 논문들에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학의 석사논문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대략 40여 편 정도가 되는데 태권도 정신을 전통사상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기도 했다. 태권도 정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들의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한 정신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그 동안 태권도 정신이라고 언급된 것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려고 한다.<sup>1)</sup>

### 나. 태권도 정신의 시대적 흐름

태권도는 해방 직후에 형성된 5대 모체관(母體館)<sup>2)</sup>을 뿌리로 하여 형성되었

1)跆拳道 精神史와 관련해서는 안영찬, 「한국 태권도 정신의 시대별 변천 과정」, 용인대학교 태권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이 있다.

2) 해방을 전후한 시점에 창설된 청도관·송무관·무덕관·조선연무관권법부·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 등의 5대 도장을 ‘기간도장(基幹道場)’이라고도 한다. ‘기

다. 태권도 5대 모체관은 청도관 · 송무관 · 무덕관 · 조선연무관권법부 · 중앙기독교청년회권법부 등이다. 이 관들은 태권도의 형성에 그 근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후 태권도 관들은 6·25 등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분란이 발생하였지만, 1978년에 9개관이 통합되면서 국기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모습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태권도 정신과 관련해서는 5대 모체관부터 9대관 또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연맹(ITF)에서 각기 언급하는 정신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 너무 많은 태권도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재는 태권도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체관 시절부터 현재까지 태권도 정신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 정신이 어떤 것에 뿌리를 두고 형성되었고 세월이 바뀌면서 강조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된 정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태권도 정신이 그 동안 무엇을 강조했고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태권도 정신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

앞서 언급한 단계들을 통해 태권도 정신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면, 앞으로 태권도계가 태권도 정신을 정립할 때 필요한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간’은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즉 ‘기간도장’이라는 것은 ‘태권도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도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5대 관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과거의 존재이다. 따라서 관이 사라진 현재 시점에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 태권도의 형성에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 창설된 5개 관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에는 ‘모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깨닫는 것이라는 점이다. 글공부를 통해 지식의 습득과는 차별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그러한 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음은 태권도 수련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그러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태권도는 한민족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세계인들이 같이 수련하는 세계 보편적인 무예로 성장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닌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류 전체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연구 과정에서 태권도 정신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고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통해 현재에 맞고 앞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과 추후 논의점

이 연구는 크게 모체관 형성 이후 현대까지 태권도의 정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모체관에서 강조한 선생세대들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이후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체관의 정신을 시작으로, 그 곳에서 파생 혹은 분화된 관들의 정신 그리고 통합 이후의 태권도 정신 변화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앞으로 요구되는 태권도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는 작업을 해 보고자 한다.

### 1) 연구방법

태권도 정신의 연구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첫째는 1960년대까지 현대 태권도가 형성된 이후에 태권도 정신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1970년대 이후 태권도의 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하는 부분이다.

먼저 첫 번째는 1945년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현대 태권도의 바탕이 되는 모체관부터 9대관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로 통합된 이후 본격적인 스포츠화를 이루는 1970년대의 태권도가 그 정신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권도협회가 창립하기 이전의 5대 모체관 시절의 무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시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오키나와 혹은 일본 가라테(空手·唐手) 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이 가라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신적인 측면도 그 영향을 받아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태권도와 가라테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현대 태권도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된다.

입장정리가 된 후, 이어서 모체관으로부터 현재의 태권도로 이어지는 태권도 정신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부분도 크게는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1978년 관 통합이 이루어져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을 중심으로 한 질서 하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모체관에서 9대관으로 재편되는 시기의 정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관통합이 이루어지 전에는 태권도라는 이름 하에 관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창설되었다. 이들 관들의 정신은 저마다 강조하는 정신을 달리했다. 대표적인 것이 ‘관훈’ 혹은 ‘관시’라는 관 정신이었다. 따라서 당시 관마다 이해한 태권도 정신이 무엇인지를 관훈을 통해 살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 시기의 태권도 정신은 구술 혹은 기억보다는 교본이나 서류 등에 보이는 관훈 혹은 관시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 대한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관통합이 이루어지고 또한 경기화(스포츠화)가 진행된 이후의 1980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삼아, 태권도 정신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시기는 무예보다는 경기가 중시된 시점이기도 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무예로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논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태권도 정신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시기는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의 공

공기관보다는 일반 연구자들이 탐구한 태권도 정신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보다는 개인 연구자들이 논문으로 발표한 견해를 살펴보고 분류하는 작업 위주로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태권도 정신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선행되어 온 기존의 태권도 정신에 관한 문헌<sup>3)</sup>과 학술 세미나<sup>4)</sup> 등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토대로 태권도 정신을 탐색하여 고찰함으로써 태권도 정신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과거 9대 관으로부터 태권도 정신을 찾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가능한 당시에 발행된 교본이나 잡지 혹은 시연과 관련한 전단지 등의 기록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1949년에 간행된 『화수도교본(花手道敎本)』이다. 그 이후 『권법교본(拳法敎本)』과 『파사권법(破邪拳法)』 등의 교본들도 이용하는데, 간행된 시기가 이르다 보니, 현재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과도 맞지 않으며, 서술도 한자(漢字)와 고어(古語)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인용할 때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원문의 한자를 ‘한글(漢字)’로 표기하고 맞춤법도 될 수 있으면, 현재의 표기에 맞게 바뀌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 2) 추후 논의점

태권도는 외적인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소홀히 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태권도 정신이 형이상학적인 거대담

3) 『국제 심판 강습 교재』에 나타난 이종우의 「태권도 정신」, 9~13쪽; 한승조의 『국기 태권도 교본』의 「태권도 정신 철학」 37~42쪽; 이정명의 『태권도』, 형설출판사, 2000의 「예의」; 김영선, 『태권도』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4) 1997년 9월 올림픽회관에서 개최된 ‘태권도 사관 정립과 태권도 정신 도출을 위한 세미나’의 발표자인 김철의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교육적 차원)」, 이진수의 「무도적 차원에서 본 태권도」의 연구 내용과 1997년 12월 경원대학교에서 ‘태권도사 교육의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규석의 「동양 무술에 대한 고찰」에서 언급한 내용과 토론의 내용들을 활용하였다.

론이 되거나, 수련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태권도 정신인양 언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자가 느낄 수 있는 보다 현실적 태권도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태권도 정신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은 태권도 수련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는 태권도가 몸으로 체득하는 몸공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가운데 태권도가 지향하는 목표인 태권도 정신을 체득할 수 있어야만 그 정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태권도를 수련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즉 같은 정신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과 체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다르게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련을 통해 체득이 가능한 부분이 태권도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정의는 보편타당하면서도 태권도 기법에 맞는 독자성이 있는 용어여야 한다. 태권도 정신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거나 신중한 고려 없이 도덕적 덕목들을 나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특수성이나 특정 집단, 혹은 특정 문화의 특수성에 함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태권도 기법의 원리를 담아낼 수 있는 독자성도 지녀야 한다. 다른 무예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태권도가 별개의 무예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제시가 완벽히 이루어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동안 거대 담론에 치우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보편적인 정신을 태권도 정신인양 언급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신들을 앞서 언급한 기준에 맞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모체관부터 9대관까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태권도 정신 가운데 우리가 그 동안 방기했던 정신이 있다면 이를 되살려 역사성을 살리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범위 한정이 필요한 듯하다. 태권도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정신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힘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은 기본적으로 육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혼’이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어떤 사

람이나 집단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나 사상' 또는 '어떤 사물의 근본을 이루는 의의나 이념'을 뜻하기도 한다. 즉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태권도 정신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다. 철학에서는 정신을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비물질적인 실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정신이 비물질적이며,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그만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경명은 태권도를 통하여 형성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가치관을 말한다고 하면서, 수련을 통해, 기술 속에서 체험과 깨달음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태권도 정신<sup>5)</sup>이라고 정의하였다.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태권도 정신에 대해 살펴본 논문들 가운데는 불교나 유교 등의 종교와 연결시켜 철학적으로 다룬 것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철학은 우주 만물의 생성 혹은 구성의 근본적 원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철학적 차원의 논의보다는 말 그대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 집중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5) 이경명, 『한국 전통무예의 철학 태권도』, 형설출판사, 2000, 60쪽.



## II . ‘ 태권도 ’ 에 대한 이해

## II. ‘태권도’에 대한 이해

### 1. 태권도의 성립 과정과 정체성

태권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권도의 형성과정과 이 글에서 소재로 삼고 있는 9대관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는 해방을 전후한 시점에 설립된 5대 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5대 관의 창설자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무예 수련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 무예도장을 개설했던 것이다. 이는 1964년에 기록된 『태수도과 수박도 분류에 대한 공개』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태수도가 처음 시작되기는 8·15해방과 더불어 일본 유학생 또는 중국에서 돌아온 몇 사람의 지도자로서 보급이 시초가 되었다.”<sup>6)</sup>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1944년 9월 15일에 창설된 청도관(靑壽館), 1946년 5월에 창설된 송무관(松武館), 1945년 11월에 창설된 무덕관(武德館), 1946년 3월 3일 창설된 조선연무관권법부(朝鮮研武館拳法部), 1946년 9월 1일에 창설된 중앙기독교청년회권법부(中央基督教青年會(YMCA)拳法部)를 모체로 삼고 있다. 이 5대 모체관은 6·25 이후에 크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창설자들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체관이 존재하면서 가지를 쳐 나온 분관과 모체관이 사라지고 난 후 갈라져 나온 파생관 등으로 분화가 일었던 것이다.

청도관은 창설자 이원국(李元國)이 정치적 문제로 일본으로 밀항한 후에 손덕성(孫德成)과 엄운규(嚴雲奎)가 이어서 관장직을 승계하면서 조직의 유지는 이루어졌지만, 이용우(李龍雨)의 정도관(正道館)과 강서종의 국무관(國武館) 그리고 고재천의 청룡관(靑龍館) 등이 분관되어 나왔다.

조선연무관권법부는 창설자 전상섭이 6·25 기간 중에 행방불명되자, 한채(한국체육관)를 거쳐 윤쾌병과 이종우과 이끄는 지도관(智道館)과 이교윤의 한무관(韓武館)으로 파생되었다. 그리고 중앙기독교청년회 권법부 또한 윤병인이 6·25 기간 중에 납북되자, 이남석의 창무관(彰武館)·박철희의 강덕원(講德

6) 『跆拳道와 手搏道 紛糾에 대한 公開』, 자연과 사람들, 2010, 10쪽.

院)·홍정표의 흥무관(興武館)·이동주의 강무관(講武館)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외에 청도관 출신을 중심으로 군대 내에 창설된 최홍희(崔泓熙)와 남태희(南太熙)가 이끄는 오도관(吾道館)이 있었다.

모체관에서 갈라져 나온 분관과 파생관들 중 청도관·송무관·한무관·창무관·무덕관·오도관·강덕원·정도관·지도관·청도관 등 9대 관 중심으로 태권도계가 재편되었다. 이 9대 관은 1977년 8월 5일 태권도 총본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태권도를 형성하는 초석역할을 하였다. 5대 모체관을 바탕으로 성립된 9대 관이 현재 태권도의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태권도의 형성에 밑바탕이 된 5대 모체관의 창설자들이 일본에서 오키나와 가라테를 수련했다는 점에서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청도관의 이원국과 송무관의 노병직은 쇼토칸(松濤館)의 후나고시 기친(船越義珍)에게서, 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의 윤병인은 슈토칸(修道館)의 도야마 간켄(遠山寬賢)과 무예 교류를 했으며, 조선연무관권법부의 전상섭은 미야기 초준(宮城長順) 혹은 도야마 간켄에게 가라테 수련을 했던 것이다. 이외에 지도관 관장을 역임한 윤쾌병은 슈또칸의 도야마 간켄에게, 오도관을 창설한 최홍희는 후나고시 기친이 창설한 쇼또칸 가라테를 경험했다. 이외에 황기는 가라테 교본을 바탕으로 가라테를 수련하였다. 즉, 5대 모체관의 관장들이 모두 가라테 기법을 알고 있었음은 사실이다. 실제로 모체관들 중에는 수련하는 무예를 청도관과 송무관은 가라테의 한자인 공수도를, 무덕관은 당수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권도의 전통성과 정체성 대한 논의가 일고 있기도 하다.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테를 모방했다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권도 역사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무예임을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태권도의 시작이 가라테(空手)로부터 시작됐다는 데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전자는 삼국시대 화랑이 하던 한국의 전통무예가 면면히 이어져서 현재의 태권도가 되었다는 견해이고,<sup>7)</sup> 후자는 일본에 유학하면서 가라테(空手)를 수련

7) 현재까지 태권도사와 관련된 글에서는 대개 이 견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견해와 관련해서는 최홍熙 『태권도 교서』(정연사, 1972)과 趙浣默의 「태권도사」(『계간

한 사람들에 의해 해방 후 국내에 보급되었으며,<sup>8)</sup>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화(韓國化)를 이루었다는 것이다.<sup>9)</sup> 물론 이 견해 또한 현재의 태권도는 경기태권(競技跆拳道)이 되면서부터 가라테로부터 탈피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현재의 태권도는 우리나라 무예임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sup>10)</sup>

하지만, 후자의 견해는 그 동안에 무비판적으로 태권도는 화랑이 하던 무예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련하던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더구나 일본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해, 태권도의 전통성 및 정통성에 생채기가 많이 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sup>11)</sup>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태권도의 역사는 삼국시대 화랑이 하던 무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먼저 제기되었다.

흔히 당수(唐手) 또는 가라테(공수)라면 삼척동자에 이르기까지 향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태권도라면 아직 사도(斯道)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사들에겐 별로 주지되어있지 않다. 또한 비록 알고 있더라도 사도를 일본 혹은 중국의 외래무술인양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 태권도는 어디까지나 이 나라 고유의 무술이다. 그 연혁을 더듬어 보면 사도가 하나의 독자적인 민족무술로서 체계화되기는 6세기초엽 삼국시대부터이다. 더욱이 신라에서는 진흥왕(眞興

---

태권도』 1·2호, 1971), 金光成·金耕知의 『韓國跆拳道史』(慶雲出版社, 1988), 최영렬·전정우의 「태권도사 정립방향에 대한 고찰」(『체육과학논총』 10, 1997), 정근표의 『태권도 사론(史論)의 Text적 접근』(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이창후의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상아기획, 2003) 등이 있다.

8) 이와 관련해서는 이호성의 『한국무술 미대륙 정복하다』(스포츠조선, 1995)와 강원식·이경명의 『태권도 現代史』(보경문화사, 1999) 그리고 강기석 『태권도 半世紀 인물과 역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01) 등의 단행본이 참조된다. 이 단행본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술했다가보다는 태권도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소박하게 서술하고 있다.

9)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楊鎭芳의 『解放以後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 競技跆拳道를 中心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와 김용욱의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통나무, 1990)가 있다.

10) 태권도사 기원설에 따른 분류는 정용익의 『현대 태권도사 정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문헌적 연구』(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78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11) 이 점에 대해서는 정용익의 『현대 태권도사 정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문헌적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에 잘 정리되어 있다.

王)조에 이르러 「태권」이란 이름으로 당시 신라사회풍조를 지배하였던 화랑도(花郎徒)들에 의하여 널리 성행되었다.<sup>12)</sup>

이 글은 1962년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당시 가라테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반해, 태권도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이를 일본 혹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무술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태권은 신라의 화랑들이 ‘택견’이라는 명칭으로 하던 무술이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이다.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무예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박대통령은 태권도에 대해선 「얼마 전 태권도·합기도(合氣道)·정도술(正道術) 등의 무술시범대회를 보았는데 대개 그 기원은 같은 것 같더라」고 말하고 「태권도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경주(慶州) 석굴암 사천왕상의 자세가 태권도의 기본자세」라더라고 소개.<sup>13)</sup>

박정희 전 대통령도 태권도가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는 요지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가 전통무예임을 강조하는 견해는 앞서 언급한 다른 무예들과 같이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태권도가 가라테(唐手)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태권도가 가라테의 영향을 받았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각관에서 철기(鐵騎) · 십수(十手) · 오십사보(五十四步) · 노하이(鷺牌) · 공상군(公相君) 등의 형을 수련하고 있었다는 데서도 가라테와 관련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 점은 1962년 11월 11일 최초의 승단심사의 과목(표 1. 참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형성에 가라테의 영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12) 『경향신문』 1962년 10월 30일, 「民族武術로서의 跆拳道의 由來」.

13) 『東亞日報』 1977년 9월 29일, 「옛날엔 손이 가늘어야 美人이었지만」.

표 1. 대한태수도협회 제 1회 심사 지정형

단별	심사형
초단 지정형	평안(平安) 오단형(五段型) · 철기(鐵騎) 초단형(初段型) · 내보진(內報進) 초단형(初段型) · 자원형(慈院型) · 화랑형(花郎型)
2단 지정형	발한형(拔翰型) 대(大)·철기(鐵騎) 이단형(二段型) · 내보진(內報進) 이단형(二段型) 기마(騎馬) 이단형(二段型) · 충무형(忠武型)
3단 지정형	십수형(十手型) · 발세형(拔歲型) · 연비형(燕飛型) · 단권형(短拳型) · 노패형(鷲牌型) · 계백형(階伯型) · 을지형(乙支型)
4단 지정형	철기(鐵騎) 삼단형(三段型) · 내보진(內報進) 삼단형(三段型) · 기마(騎馬) 삼단형(三段型) · 자은형(慈恩型) · 진수형(鎭手型) · 암학형(岩鶴型) · 진동형(鎭東型) · 삼일형(三一型) · 장권형(長拳型)
5단 지정형	공상군형(公相君型) · 관공형(觀空型) · 오십사보형(五十四步型) · 심삼형(十三型) · 반월형(半月型) · 팔기권형(八騎拳型)

\* 강원식 · 이경명의 『태권도 現代史』(보경문화사, 1999, 45~46쪽)에서 인용

이 때문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태권도를 가라테의 한 파 혹은 가라테의 변형, 심하게는 짝퉁 가라테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제기되곤 한다. 물론 이는 그 동안 비판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던 ‘태권도는 화랑으로부터 내려오던 무술’이라는 ‘태권도 전통무예계승론’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은 반대로 태권도에 애정이 있었던 이들이 그만큼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렇다면, 태권도의 ‘가라테파생론’, 심지어는 ‘가라테짝퉁론’ 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태권도는 가라테의 영향만을 받았을까?

그런데, 심사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태권도 형성에 전적으로 가라테 기법의 영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찾아진다. 심사지정형 가운데는 가라테 형이 아닌, 중앙기독교청년회권법부의 단권형(短拳型) · 장권형(長拳型) · 팔기권형(八騎拳型) 등이, 오도관(吾道館)의 화랑형(花郎型) · 충무형(忠武型) · 을지형(乙支型) 등의 창작 품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기독교청년회권법부의 창설자인 윤병인은 만주에서 다양한 무예를 수련하였다. 윤병인이 6·25 기간에 실종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단권(短拳: 攻擊型 ·

防禦型)·장권(長拳:攻擊型·防禦型)·토조산(攻擊型·防禦型)·태조권(太祖拳)·팔기권(八騎拳:攻擊型·防禦型) 형 등을 전수하였다.<sup>14)</sup> 이 외에도 봉술(棒術)이나 도술(刀術) 등의 무기술도 가르쳤으며, 현재도 이 형들 가운데 일부는 전수되고 있다.

가라테 외에 다른 무술의 영향이 있었을 것임은 무덕관을 세운 황기의 무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1935년 남만주 철도국에 입사해 그 곳에서 양국진이라는 선생에게서 국술(國術)을 배웠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해 태권도 원로들은 그의 무력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sup>15)</sup>하여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기가 하나의 관을 세울 정도였으며 『화수도 교본』 이후 꾸준한 그의 논지를 고려한다면, 그가 어떤 종류의 무예를 수련했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만약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술은 만주에서 배운 무예를 가리키는 것이라 판단된다. 후에 가라테 기술이 태권도 창시과정에서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타 무술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하튼, 해방 즈음의 시기에 나중에 태권도로 통합되는 ‘관(館)’을 세운 이들의 무예는 오키나와로부터 유래된 가라테 외에 만주 지역의 무예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형성에 가라테만이 영향을 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견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모든 문화의 전파가 그렇듯이, 오키나와 가라테 수련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기독교청년회권법부의 경우에는 가라테에 비해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으며, 힘을 짜는 방법도 달랐다고 한다. 특히 모든 가라테 형들의 차기는 앞차기로 바뀌서 수련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창설자 윤병인의 독자적인 수련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p>16)</sup> 청도관의 경우에도 옆차기 등에서 가라테의 형에서 보이는 옆차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기법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일본식에서 탈피하여 한국인들의 체질에 맞게 변형되었음을 말해준다.

태권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무예라는 점만

14) 朴哲熙, 『破邪拳法』, 講德院士道會 泗雲塾, 1958, 39~40쪽.

15) 姜원식·이경명, 『태권도 現代史』, 보경문화사, 1999.

16) 2007년 6월 30일 지승원과의 인터뷰.

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의 가라테형이 옆차기 대신 앞차기였음은 윤병인의 직제자인 박철희의 『破邪拳法』(講德院士道會 泗雲塾, 1956)에 수록되어 있는 가라테형의 연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을 강조하였던 탓에 가라테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그 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이 사실이다.

가라테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관련하여 강덕원 창설자인 박철희의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권법이나 카라테를 보급한 이들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이다. 윤병인 선생이나 연무관의 전상섭 선생은 민족적인 자긍심에서 태극띠를 착용했으며, 유단자의 띠도 6·25사변 전에 연무관에서는 유단자의 띠가 지금의 검은띠와는 달리 띠의 위와 아래는 파란 줄이고 가운데에 흰줄이 들어가 있는 띠를 착용했었다. 또한 무덕관은 고구려의 복장을 도복으로 채택하는 등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었다. 더군다나 이들은 카라테를 일본 무술로 이해하지도 않았다. 카라테는 일본 무술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오키나와의 무술로 이해한 것이다. 일설에는 일본 카라테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나고시 기친(船越義珍)’이 카라테를 일본에 보급한 것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점령을 당하고 점점 독립의 희망은 사라졌지만, 그가 카라테를 가르친 사람들에 의해 오키나와의 정신이 기억되고 카라테가 전승되는 한 언제까지고 남겨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카라테를 배우는 사람들은 결국 이 무술이 오키나와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오키나와라는 독립국가에 대한 인식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 당시 우리나라에 ‘오키나와 카라테’를 보급한 이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sup>17)</sup>

박철희는 권법이나 가라테를 수련한 선생 세대들이 민족주의자로, 윤병인과 전상섭은 태극띠를 착용하였으며, 무덕관은 고구려인의 복식을 도복으로 채택했다는 점과 함께 이들이 오키나와와 당시 조선의 상황을 같이 보고 ‘일본’ 가라테가 아닌 ‘오키나와’ 가라테를 수련해 국내에 전파했다고 한다. 물론 박철희의 언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17) 허인욱, 「四雲堂의 태권도이야기-태권도, 나의 길」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235~236쪽.

하지만, 적어도 국내에 가라테를 보급한 이들이 가졌던 처음의 생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왜색논쟁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라테를 ‘일본의 무도’로 인식하는 현재의 입장에서 일본에 유학하던 조선인들이 오끼나와인들에게 배우던 무예를 일본 무예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가 일본 무도를 모방했다고 하는 인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박철희의 언급은 당시대인들의 인식이 현재와는 매우 달랐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가라테를 보급한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인 청도관 창설자 이원국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원국은 저서 『태권도 교범』에서 그가 우리나라에 가라테를 보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던 것이다.

카라테를 배우던 당시 오끼나와의 실정과 비교하여 무기가 없는 우리 한국이 야말로 적수공권의 이 무도가 극히 긴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깨달은 바 있어 보급하였다.<sup>18)</sup>

이 기록은 이원국이 가라테를 일본 무술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일본에 강제 편입된 오끼나와의 무술로 이해했으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에 보급하려고 하여 힘을 키우고자 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원국의 언급은 선생 세대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증거로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듯하다.

태권도의 전통무예론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드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택견으로부터 이어진 무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태권도라는 명칭을 작명한 최홍희가 태권도의 명칭을 택견에서 가져왔다는 사실 때문에 택견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황기를 제외한 다른 관의 창설자들은 택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택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이원국의 말을 보자.

도장을 열기 전 한달 쯤 전인 8월 어느 날 이용은 장충단 공원에서 김씨 성을 가진 노인이 땅바닥에 2m쯤 간격으로 작은 구멍 세 개를 삼각형으로 파놓고 이를 차례로

18) 李元國, 『跆拳道教範』, 進修堂, 1969, 34쪽.

짚고 뛰면서 차기 연습중인 것을 목격했다.

김 노인에게 물으니 그것이 「태권」이라 했다. 이웅은 그 뒤에도 몇 차례 그를 만나면서 우리 고유무술에 태권이란 것이 있음을 알았으나 김 노인이 얼마 뒤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만남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는 ‘그것이 「태권」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말했다.<sup>19)</sup>

이원국은 태권의 동작을 우연한 기회에 김노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태권을 구경하기는 했지만, 그 기술을 몸에 익힐만한 시간이 없었으며, 실제로 익히지도 않았음을 알려준다. 태권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는 최홍희이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였다.

(한일동) 선생은 또한 주로 발만 쓰는 태권 무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아버님 못지 않게 나의 약질을 염려해 틈이 날 때마다 무용담을 들려주며 담력을 키워주고, 원시적이긴 했지만 태권의 초보적인 기술도 몸소 가르쳐 주었다.<sup>20)</sup>

최홍희는 어린 시절 근대 서예가로 유명한 옥람(玉藍) 한일동(韓湓東·1879~1951)으로부터 태권 기술을 습득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한일동이 태권의 기술을 몸에 익히고 있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서술은 그가 앞서 저술한 『태권도교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나는 선천적으로 약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택한 무술은 6세기 때 신라에서 기원한 태권과 1922년 5월 일본에 소개된 당수였다……그 후 근 10년 간 발만 쓰던 태권과 주로 손의 기술에만 의존하던 가라테를 종합 연구하여 오늘과 같이 체중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무도로 발전시킨 다음……이름을 태권도로 단일화하게 되었다.<sup>21)</sup>

최홍희는 그가 어려서부터 익힌 태권이 태권도 발기술 형성에 큰 영향을 미

19) 權泰東, 「宗主國이 쫓아냈던 跆拳道始祖 李元國翁」, 『月刊中央』 1994년 12월호, 中央日報社, 316쪽.

20) 최홍희, 『태권도와 나』 1, 사람다움, 1997, 36쪽.

21) 崔泓熙, 『태권도 교서』, 정연사, 1972, 서문.

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 언급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최홍희 자신이 택견의 발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고도 증언한 적이 있다<sup>22)</sup>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태권도에 많은 발기술이 가미된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오던 전통적인 기법의 영향이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택견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로는 황기도 있다. 그는 그의 저서 『당수도교본』에서 택견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저자는 해방 전부터 우리나라 독특한 무술인 「태권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모든 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투신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 「태권법」과 중국의 「십팔기법」(국술) 오끼나와(충승)의 「가라테」 등에 대한 다소나마 지식과 기술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

황기는 그 스스로 택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택견 외에도 중국무술 그리고 오끼나와 가라테의 기술을 알고 있었음도 분명히 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그는 『수박도대감』에서 사도(斯道)로 지칭되는 무술계가 차기에 있어서 택견의 영향을 받았음을 서술하였다.

이조말엽에는 순족기(純足技)만으로 되어 있는 『태권』이라는 것이 실존하여 현재 생존한 고령자 중에는 실제로 습득한 사람도 있고, 실기를 본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태권』은 의의있는 도(道)나 무예로 취급받은 일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의 사도의 기술면에 있어서 특히, 족기(足技)에 있어서 다대한 교훈을 받았고 또 모체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sup>23)</sup>

황기는 당시 우리나라 안에 존재한 무예들이 발기술에 있어서 택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덕관에서 발기법이 수련되었음은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 무덕관에 입문한 김인석이 ‘당시 관장이었던 황기는 족기(足技)를 많이 가르쳤다’<sup>24)</sup>는 증언을 통해서도 무덕관에 발기술을 중심으

22) 한병철, 『고수를 찾아서』, 영인문화사, 2003, 192~193쪽.

23) 황기, 『수박도 대감』, 삼광출판사, 1970, 41쪽.

로 수련하였음을 알려준다.

1949년에 간행된 『화수도교본』을 보면, 6·25 이전에 다양한 발기술이 수련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발기술과 관련된 명칭을 보면, ‘뛰어 두발 앞차기’를 ‘두발쌍당’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택견에서 쓰는 ‘두발낭상’ 혹은 ‘두발당상’과 같은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당수도교본』에는 ‘빗차기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택견의 ‘췌차기’와 동일한 기법으로 보여, 택견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점만으로 ‘택견’의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무덕관에서는 ‘앞으로 발을여나가기’ · ‘옆으로 발을여나가기’ · ‘뒤로 발들여나가기’ · ‘옆빼더나가기’ · ‘옆차나가기’ · ‘발로막아나가기’<sup>24)</sup> 등의 우리말로 풀이가 되어 있는 발기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전통적인 차기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화수도교본』에는 발기법과 관련해서 우리말 풀이 명칭이 기록된 반면, 손기술 명칭과 관련해서는 한자어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이는 아마도 한글 풀이 명칭의 사용은 가라테 혹은 만주에서 배운 무예와는 별개의 수련법이었던 탓이 아닐까 한다. 한자식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말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택견에 대해서는 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 출신이자, 강덕원을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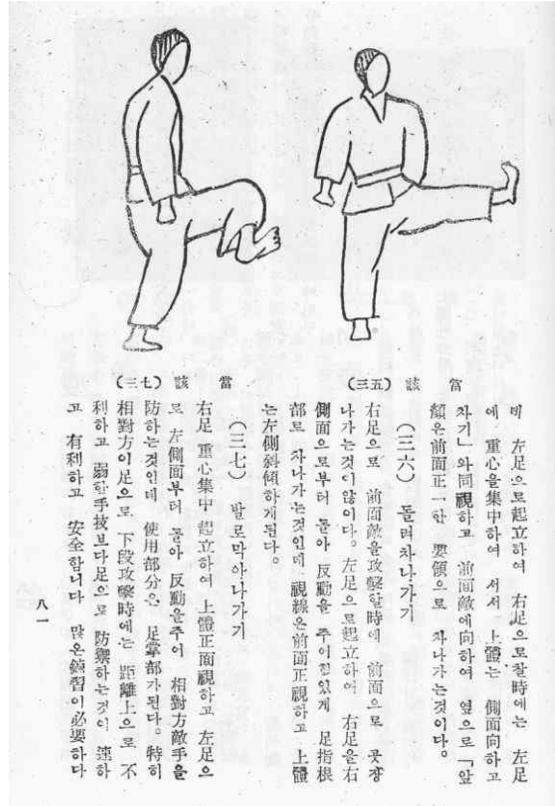


그림 1. 『화수도 교본』의 발질 서술  
\* 1949년 발간된 『화수도교본』에선 발질 명칭이 우리말로 되어 있다.

24) 강기석, 『태권도 半世紀 인물과 역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01, 28~29쪽.

25) 黃琦, 『花手道教本』, 朝鮮文化教育出版社, 1949, 78~81쪽.

한 박철희도 그의 저서 『과사권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일제 36년간에는 다만 「택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수개 처에서만 수련하다가 해외로 유학했던 청년들이 귀국함에 따라 일본의 공수권법과 중국의 국술권법을 도입하여 「택견」과 아울러 정신수양과 청년들의 체력향상의 방법으로 서울 수개 처에서 개설 교수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sup>26)</sup>

일제강점기 기간에는 택견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해방 이후에 일본무술과 중국무술과 함께 택견이 정신수양의 한 방법으로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태권도와 택견이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택견의 기술이 흡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발기술이 태권도에 가미된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오던 전통적인 발기술의 영향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도 피력하였다.

‘태권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차기가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에 영향을 준 발을 사용하는 우리 전통무예는 대개 ‘택견’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그것이 ‘택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발을 잘 찼는데, 누구한테 배운 것은 아니지만 ‘두발당상’은 쉽게 했다. 친구들과 초가지붕에 열린 고드름을 ‘두발당상’으로 차서 떨어뜨리는 놀이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는 분 중에 한 분은(후일 검도로 일가를 이루신 분이시다) 학교 교실에 들어갈 때 교실문의 위턱을 한 번씩 차고 다녔으며, 싸움을 해도 발로 다 제압을 할 정도였다. 그분도 어떤 특정 인물에게서 배운 것은 아니었다. ‘태권도’에는 이런 ‘발을 잘 차는 문화적 토양’의 영향을 받아서 발차기가 특징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문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전통무예의 영향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sup>27)</sup>

박철희 스스로도 누구에게 배운 것은 아니지만 두발당상 등의 발차기에 능했으며, 그가 아는 이도 검도를 했지만, 발질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였다고 한

26) 박哲熙, 『破邪拳法』, 講德院士道會 泗雲塾, 1958, 16쪽.

27) 허인옥, 「四雲堂의 태권도이야기-태권도, 나의 길」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239쪽).

것이다. 그는 이를 한국 전통무예의 영향으로 인식하였다.

도올 김용옥도 저서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에서 60년대 초반에 이미 차기 중심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특히 그는 횡으로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그냥 발을 휘 돌려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따귀를 때리는 ‘안다리차기’와 발을 S字로 안으로 돌려 발등으로 반대편 턱주격을 걸어 올려 차는 연습을 많이 했다<sup>28)</sup>고 한다. 김용옥은 ‘안다리차기’를 택견의 ‘발따귀’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sup>29)</sup> S자로 안으로 돌려 발등으로 반대편 턱주격을 차는 기법은 현재 택견의 ‘짜차기’ 혹은 ‘내차기’와 유사한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택견의 영향인지 혹은 발을 사용하는 다른 전통무예의 흔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sup>30)</sup>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전통무예의 발질이 태권도 형성 초기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은 분명히 한다. 즉, 태권도에 우리나라 무예의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통무예와의 관련을 배제하는 논의 또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31)</sup>

현재 태권도와 전통무예인 택견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유단자 품재인 ‘고려’의 ‘오른(또는 왼) 아귀손 칼재비’의 존재를 통해서이다. ‘칼재비’는 아귀

28) 김용옥,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1990, 84·90쪽.

29) 김용옥,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1990, 90쪽.

30) 이 점 때문에 양진방은 최홍희나 황기가 택견의 영향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태권도 기술체계 속에는 택견의 기술이나 기술용어들(품밟기나 활개짓)이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택견의 기술을 수용했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택견과의 관계는 살펴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오히려 일본의 공수와 당수의 지도서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들어 기술체계에 일본의 당수를 수용하였음을 언급하였다(楊鎭芳, 『解放以後 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 競技 跆拳道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그러나 이 견해는 오키나와나 일본의 카라테에 없는 다양한 차기가 태권도 기술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31) 이에 대해 최영렬·전정우는 태권도의 특유한 기법인 받아차기나 나래차기가 태권도 경기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 전승되던 것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서술하면서 선대의 기술이 이어진 것임을(최영렬·전정우, 「태권도사관 정립 방향에 관한 고찰」 『체육과학논총』 10, 1997, 9~10쪽), 이창후도 스텝이나 돌개차기가 이미 50년대에 존재했다는 이준구나 이규석의 증언을 예로 들면서 우리 고유의 몸짓과 연결됨을 언급하였다(이창후,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상아기획, 2003, 27~28쪽).

손으로 상대의 목을 쳐서 조아리는 방법도 있지만 낙턱이라 하여 아귀손으로 칠때 손목작용을 하여 턱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방법이다. 쳐서 아래턱이 빠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sup>32)</sup> 이는 택견의 ‘칼잡이’와 용법이 동일하다.<sup>33)</sup> 택견의 손동작인 칼잡이가 태권도 품새에 삼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 현재의 태권도는 택견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즉, 적어도 현재 태권도 형성에 있어 한국의 전통적인 무예의 영향 또한 존재하고 있음은 인정해야만 한다.

오히려 태권도의 차기가 가라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특히 ‘내려찍기’는 요 근래 가라테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일본인들도 내려찍기가 태권도의 독특한 기술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sup>34)</sup> 이는 무예 기법은 실용성과 필요에 따라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태권도가 가라테의 기술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논리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태권도는 앞서 살펴봤듯이, 가라테와 만주 지역에서 행해지던 권법 그리고 발기술 중심의 한국전통무예가 서로 영향을 주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무예임을 강조하였던 탓에 가라테(空手)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그 전통성과 정체성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태권도의 해방 즈음 역사를 알게 된 이들은 전혀 별개의 무술로 이해하던 가라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권도는 가라테 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해방 이후 다양한 무예(가라테와 만주 지역의 무예 그리고 발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가라테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무예로 변화했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는 세계 태권도연맹의 홈페이지에도 “오늘날의 태권도는 다른 동양 무술과 유사점이 많고 특징도 비슷한데, 이는 발달 과정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 및 중국의 무술

32) 국기원 홈페이지(<http://www.kukkiwon.or.kr>) 중 태권도기술 - 품새 설명(2013년 12월 5일 검색).

33) 坂上隆祥의 『공수도백과』에 기록된 39종의 型에 나타나는 손동작에는 이 칼잡이 기법은 나타나지 않는다(坂上隆祥 著·姜泰鼎 譯), 『공수도백과』, 서림문화사, 2002).

34) 小島一志 監修, 『格闘技 必殺技 53』, ナツメ社, 1997, 92~93쪽.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무술 기법을 흡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태권도는 다른 동양 무술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태권도는 현란한 발 기술 등 동적인 동작이 많아 매우 역동적이다. 둘째, 태권도의 기본 신체 동작들은 사람의 정신 작용 및 일상 동작들과 유기적이다. 셋째, 태권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자세가 달라 보여 더욱 역동적으로 느껴진다.”<sup>35)</sup>라고 하여 변화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현재의 태권도는 가라테와는 별도의 무예라는 데에 혼란을 갖지 않아도 되리라 여겨진다. 추후 전통적인 동작을 연구하고, 이를 좀 더 보완하면 우리 무예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태권도에 가라테의 잔재가 남아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반반 정도 찬성과 반대가 나뉠 듯하다. 가라테 품세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반면, 또 반대로 겨루기는 가라테 경기와 완전히 다른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도 태권도를 ‘발로하는 복싱’이라고 할 정도로 손기술이 거의 배제된 발기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가라테보다는 오히려 택견의 겨루기에서 더 가까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태권도는 분명 가라테와는 다른 품격과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택견과 비교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갖게 되었음도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언급 강덕원을 창설자 박철희의 언급이 주목된다. 박철희는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60년 된 전통무예’라고 정의하였는데, 현대 태권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sup>36)</sup>

35) 『세계태권도협회홈페이지 태권도 소개(2014년 11월 26일 검색)』

([http://www.wtf.org/wtf\\_kor/site/about\\_taeqwondo/taekwondo.html](http://www.wtf.org/wtf_kor/site/about_taeqwondo/taekwondo.html))」

36)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허인욱, 「형성과정으로 본 태권도의 정체성에 관하여」 『한국체육사학회지』 14, 2004;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한국 전통 맨손무예사」 『국기원 2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 교재』, 국기원, 2011을 참조.

## 2. '태권도'의 본질에 대한 규정 변화

### 1) 1960년대 이전의 태권도 규정

앞서 살펴본 대로 태권도는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정착되기 전에는 공수도·당수도·화수도(花手道), 권법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려왔다. 따라서 태권도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시기를 포함해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의 창설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보급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창설자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물론 창설자 가운데 그 의미를 언급한 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청도관을 창설한 이원국은 1968년에 간행한 저서 『태권도교범』에서 태권도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원국은 그 교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던 것이다.

태권은 적수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의 모든 부분 특히 수족(手足)을 조직적으로 단련하여 무기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 그 일격일축(一擊一蹴)으로 불시에 적을 쓰러뜨릴 수 있게 수련된 호신술(護身術)이며, 전신(全身)을 상하·전후·좌우로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서 평상시 그리 사용치 않는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기 때문에 수족(手足)의 발달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치우칠 우려가 전혀 없는 극히 이상적인 체육이라 하겠다.<sup>37)</sup>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관을 창설한 이원국은 태권도를 적수공권(赤手空拳) 즉, 맨손과 빈주먹을 사용하는 무예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신체 전체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로도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맨손무예라는 점은 창설자 이후 수련을 한 이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진다. 최석남(崔碩男)은 1955년에 간행한 『권법교본』에서 “권법이란 도인법(倒人法)이다. 도인법이란 사람을 꺼꾸러트리는 법으로 즉 무술이라는 말이다. 이 무술에서도 총이나 검이나 기외(其外) 여하한 무기도 손에 갖지 않고 가장 적

37) 李元國, 『跆拳道教範』, 進修堂, 1969, 29쪽.

은 힘을 써서 가장 많은 성과를 얻는 무술을 권법이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이 도인법을 행사하려면 상대는 필히 적이어야 한다.”<sup>38)</sup>라고 하거나, 박철희는 1958년에 간행한 『과사권법』에서 “권법이나 당수도는 지르고 차는 것을 위주로 이 모두가 적수공권으로서 방어·공격하는 방법에는 틀림이 없다.”<sup>39)</sup>라고 하여 맨손무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견해가 당시 보편적이었던 것은 1961년 청용관의 「태권도청용관 태권도연무대회 겸 제16회승단급심사」 전단지에서도 나타난다.

(태권도는) 또한 무기를 갖지 않고 공방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서 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언제나 호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sup>41)</sup>

태권도 관련자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보이는 전단지에 무기 소지를 하지 않고 맨 몸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임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최홍희도 1959년에 펴낸 『태권도교서』에서 “태권은 문자 그대로 도수공권(徒手空拳)을 특색으로 하는 무도”<sup>42)</sup>라고 정의를 내렸다. 최홍희는 1966년에 펴낸 『태권도지침』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태권도를 규정했는데, “태권도를 글자 풀이로 한다면, 태(跆拳道)는 발로 뗀다·찬다·밟는다라는 뜻이요. 권(拳)은 주먹을 의미하며, 도(道)는 길, 무도 혹은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sup>43)</sup> 맨손무예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것들과 동일하지만, 발을 사용하는 점을 좀 더 구

38) 崔碩男, 『拳法教本』, 東西文化社, 1955.

39) 朴哲熙, 『破邪拳法』, 講德院士道會 泗雲塾, 1958, 151쪽.

40) 태권도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라는 이원국의 언급은 전부 맞기만 한 것은 아니다. 초창기 창설된 관들이 모두 맨손무예만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앙기독교청년회권법부의 경우에는 칼과 봉(棒) 등의 무기술도 수련하였으며(허인욱,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96쪽), 무덕관에서는 단봉(短棒)을 연구한 이도 있었던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武藝時報』 1958년 9월 1일자 「短棒의 研究」). 하지만 대부분의 모체관이나 이를 계승한 9대관에서 수련 내용한 내용이 맨손무예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원국의 논의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41) 「跆拳道靑峯館 跆拳道演武大會 兼 第16回昇段級審査」 檀紀 4294년 3월 26일.

42) 崔泓熙, 『跆拳道教本』, 誠和文化社, 1959, 35쪽.

43) 崔洪熙, 『태권도지침』, 정연사, 1966, 14쪽.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960년대까지의 태권도는 맨손을 이용한 무예임을 명백히 하면서도 일격필살의 무예로 태권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의 태권도에 대한 규정이 어떠했는지는 이교윤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성행 보급되고 있는 태수도는 종전에 불리어오던 공수도·당수도·권법·태권도·수박도 등 여러 명칭을 통합(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 가맹) 집대성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이론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유·음양·호흡의 원리에 근본을 두고 적수공권으로 호신과 함께 적을 막는 공방자재의 윤리적 교훈을 그 바탕으로 삼는 무도인 것이다.……과거에는 태수도(跆拳道=일명 공수(空手)·당수(唐手)·태권(跆拳道)·권법(拳法)·수박(手搏)·태권)라고 하면 먼저 무술이라는 관념이 앞섰고 스포츠로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태수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동남아제국, 멀리는 구미 각국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하나의 건전한 새로운 무술 스포츠로 발전하였으며, 머지않아 「국제 태수도 연맹」의 결성마저 보게 될 기운이 짙어가고 있어, 이른바 범세계적(汎世界的) 스포츠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게 되었다.<sup>44)</sup>

이교윤은 태권도를 정의하면서, 앞서 이원국 등이 언급했듯이 적수공권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는 1963년에 태수(권)도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면서 스포츠로서의 면모가 더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까지 보급되며 세계적인 스포츠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무예이면서 스포츠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태권도를 ‘무술스포츠’로 정의한 것이다. 당시 이교윤이 한무관의 관장이자 대한태수도협회 이사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권도계 내에서조차 태권도가 무예라기보다는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이다.

44) 李敎允, 「序文」 『百萬人의 跆拳道敎本』, 토픽出版社, 1965, 13~15쪽.

## 2) 1970년대 이후의 태권도 규정

1970년대의 태권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대한태권도협회에 발행한 『태권도』 창간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옛날부터 태권도는 “군자의 무술”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이 말은 정신을 정화시키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태권도의 극치에 도달하면 반드시 예의에 밝고 공손하고 온화하며,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마음과 행동을 갖게 된다는 데서 온 것입니다. 즉, 태권도는 승패를 궁극적으로 하는 무술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수련을 통하여 인간성을 완성하는 술(術)이요, 도(道)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 한국은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sup>45)</sup>

이 글은 1971년도의 『태권도』지에 보이는 김운용의 「창간사」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태권도를 ‘군자의 무술’이라고 지칭하면서 인간성을 완성하는 정신수양의 무예로 인식했음을 말해준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1960년대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면도 일부 보인다. 그런데 김운용의 창간사를 좀 더 살펴보면, 태권도를 무예가 아닌 스포츠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당시 태권도는 무예의 차원만 아니라, 스포츠로서의 위상도 같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1972년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간행한 『태권도교본』(품세편)에서도 느낄 수 있다.

-태권도는 하나의 행동철학이다.-

태권도란 인간생존의식의 육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신적 욕구를 구체화하려는 체육적 활동이라 하겠다.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자아방위본능을 기본으로 하여 점차 필요성에 따른 신념의 작용으로,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발

45) 대한태권도협회, 「창간사」 『태권도』 1, 1971, 12쪽.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철대적인 행동단계에 이르는 동시에 자아를 극복하고 대  
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체육이다.<sup>46)</sup>

태권도를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만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고, 정신적인 측면  
까지 포괄하여 ‘행동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 글에서도 ‘무예’보다는 ‘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용어 사용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명확치 않지만, 은연중에 무도보다는 체  
육(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이러한 인식은  
1962년 6월에 대한체육회에 가입하고 그 해 10월에 전국체육대회의 종목으  
로 포함되면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화를 시킨다는 일념 하에 경기화에 매진하던 시기의 분위기가 반영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6년 문교부에서 「체육 교육 자료 총서」의 하나  
로 편찬한 『태권도』에는 “태권도란 아무런 무기나 호구(護具)도 갖지 않고 발  
로 뛰고, 차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손 또는 주먹으로 지르고 찌르고 때  
리고 막는 기술에다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인간(무도인)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운동이다.”<sup>47)</sup>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무예로서의 설명을 하고 있지  
만, 체육 교육의 자료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무예와 체육이라는 모호한 입장  
을 취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후에는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에서 공식적으로 태권도를 정의한 것은 찾  
아보기 힘든데, 대신에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그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정찬모,<sup>48)</sup> 김철,<sup>49)</sup> 신창화,<sup>50)</sup> 김영선,<sup>51)</sup> 배영상·송형석·이규형<sup>52)</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논의는 다음의 <표 2>를 통해 정리해 봤다.

46)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교본』, 1972, 14쪽.

47) 정찬모, 『태권도』, 문교부, 1976, 11쪽.

48) 정찬모, 『태권도』, 문교부, 1976, 11~12쪽.

49) 김철, 『태권도 교육론』, 원광대학교 출판국, 1960.

50) 신창화,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  
사 논문, 1994.

51) 김영선, 「태권도란 무엇일까요」 『태권도』 92, 1995, 21~25쪽.

52) 배영상·송형석·이규형, 「태권도의 개념」 『오늘에 다시 보는 태권도』, 이문출판사, 2002  
(이 부분은 송형석·이규형, 「태권도 개념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권  
3호, 2005, 57~67쪽으로 수록).

표 2. 태권도 정의에 대한 간략 내용

학자	연도	중요내용
정찬모	1976	태권도란 아무런 무기나 호구도 갖지 않고 발로 뛰고, 차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손 또는 주먹으로 지르고, 찌르고, 때리고, 막는 기술에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김경지 나봉순 이은송	1984	태권도란 손과 발, 그리고 전신을 움직여 몸의 힘을 위력과 기술로 연결시키는 운동으로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수련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기술단련을 통해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방어하는 운동이다. 태권도를 글자로 풀이하면 태(跆)는 ‘발로 찬다’는 뜻이요, 권(拳)은 주먹을 의미하며, 도(道)는 ‘인간다운 길’·‘무도의 길’·‘수련방법’을 의미한다.
김철	1986	태권도란 건전한 인격형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체의 중요 부위를 단련 무기화시킴으로써 신체를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동적 무예
김석련	1988	태권도란 인간 생존의식의 육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신적 욕구를 구체화하려는 체육적 활동이라 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 곧 태권도
신창화	1993	고유 명사적 의미와 함께 보통 명사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용어 광의적 의미: 고래로부터 전해 오는 비무장 전투기술은 ‘태권도’라 불릴 수 있다. 협의의 의미: ‘택견’의 근대화된 형태에서 ‘비무장 전투기술’에 ‘고정 이데올로기’를 가한 ‘특수 교육체계’
김영선	1995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무기를 쓰지 않는 (맨손) 격투기 형식의 한국적 운동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신체운동(체육) 발차기를 위주로 하는 호신적 무예스포츠 인격완성을 추구하는 무도(武道)
안용규	1998	손과 발의 기술 체계를 습득함으로써 심신의 조화와 개선을 이루어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운동
이경명	2002	태권도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몸짓이다.’태권도 자구(字句)는 태권과 도의 만남에서 명명(命名)되고, 그것은 다시 ‘태(跆)’자와 ‘권(拳)’자의 합성에 ‘도(道)’자의 모듬이다. 자구적 풀이는 밭을 태자와 주먹 권(拳)자. 그리고 길 도(道)자로 ‘셋을 모아 하나’를 이루고 있다.
배영상 송형석 이규형	2002	사실적 정의: 한국 무술(싸움기술, 투기)로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떨어져서 겨루며, 타격방식의 발기술 위주로 이루어진 기예 규범적 정의: 태권도를 인간의 길·기술의 길·수행의 길 세 가지로 정의

\* 이 표는 이창후의 WTA 기본교재 『태권도 철학』, 16쪽에서 인용

이 논의들을 살펴보면, 태권도의 정의를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보다는 좀 더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도를 강조해 인격수양의 단계까지 포함하는 단순히 기술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신 차원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

해가 된다.<sup>53)</sup>

이 견해들 가운데는 앞서 국기원 등의 공식적인 견해에서 보이듯이, 태권도가 맨손 중심의 무예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음은 분명히 이해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체육(스포츠)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예스포츠’라는 용어가 현재 태권도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교분류와 함께 보면, 1970년대 이후에는 태권도가 무예라는 측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체육이라는 측면으로 그 규정이 변해가는 경향이 있음을 판단된다.

무예와 스포츠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재 태권도 공적 기관인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나타난다.

[국기원] : 태권도는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동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한국 전통 무예스포츠이다.<sup>54)</sup>

[대한태권도협회] : 태권도는 남·여·노·소 어떤 사람이나 제한없이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이다.<sup>55)</sup>

[세계태권도연맹] : 태권도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국 전통 무술로서, 싸움의 기술 그 이상을 전수한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오늘날 태권도는 국제적 스포츠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sup>56)</sup>

53) 이외에 김대식과 김광성(1985)의 경우에는 태권도(TAE KWON DO)의 로마자 합성어를 풀이하여, “T는 생각(Think), A는 행동(Action), E는 기품(Elegance), K는 한국(Korea), W는 의지(Will), O는 질서(Order), N은 자연(Nature), D는 방어(Defence), O는 일치(Oneness)로 정의하여 태권도는 우주와 자연의 일부분으로 한국의 행동질서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54) 「국기원 홈페이지(<http://www.kukkiwon.or.kr>)」, 태권도 정의(2014년 11월 26일 검색).

55)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taekwondo.org/>)」, 태권도란 무엇인가?(2014년 11월 26일 검색).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태권도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서술한 내용을 보면, 전통무예라 점을 들거나, 심신 수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을 각자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단체에는 전통무예라는 언급이 빠져 있기도 하고 손과 발을 사용해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점이 빠져 있기도 한다. 하지만 세 단체 모두 무예 스포츠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즉, 태권도를 무예이지만, 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태권도의 정체성과 태권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살폈는데, 그 이유는 그에 따라 정신도 태권도의 정의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변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정신에 대한 논의도 이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설명되리라 생각한다.

---

56) 세계태권도협회 홈페이지 태권도 소개(2014년 11월 26일 검색).  
([http://www.wtf.org/wtf\\_kor/site/about\\_taekwondo/taekwondo.html](http://www.wtf.org/wtf_kor/site/about_taekwondo/taekwondo.html))

### Ⅲ. ‘태권도 정신’ 시대별 추이

### Ⅲ. ‘태권도 정신’의 시대별 추이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와 ‘정신’이 합쳐진 말이다.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마음의 자세나 태도’,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태권도 정신과 관련해서는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이 가장 가까운 뜻인 듯하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간행한 『태권도 역사·정신에 관한 연구』에서는 태권도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태권도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이다. 수련상황에서 얻어지는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자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태권도를 넘어서 세계의 각종 무술과 대화하고, 나아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 행위에 내포된 근원적이며 이상적인 인간 의식, 그리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이거나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 영역에서 정신은 기술과 신체면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태권도 기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원의 의지이며, 태권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실천 기준을 제시해 준다.<sup>57)</sup>

태권도의 정신을 크게 수련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정신과 수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가치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을 김우창은 “태권도의 근본 의의나 목적 또는 태권도 수련(행위)에 내포된 근원적이면서 이상적인 인간 의식”이라고 하였으며,<sup>58)</sup> 이창후는

57) 이규석 외, 『태권도 역사·정신에 관한 연구』, 태권도진흥재단, 2006, 191~192쪽.

58) 金禹滄, 「跆拳道精神 定立을 위한 摸索」,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3쪽.

“태권도인에게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행위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sup>59)</sup>로, 김영선은 “태권도인이 추구하는 이념과 윤리적 덕목 또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와 정신 능력”<sup>60)</sup>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태권도 정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체관 성립 후에 9대관으로 재편될 당시의 정신부터 이해해야 한다. 초창기에는 창설자들의 무예 수련 경험에 따라 공수도나 당수도 혹은 권법 등으로 불렸는데, 이는 ‘정신’도 그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모체관이 창설된 시점부터 9대관이 존재할 당시의 정신을 살피는 작업을 하고, 대한태권도협회로 통합된 이후에 강조된 정신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개인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를 살피는 방향으로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 1. 1960년대 이전의 태권도 정신

### 1) 모체관 설립과 9대관 형성기의 인식

태권도의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설자 혹은 이에 준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정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도관을 세운 이원국이 생각하는 태권도 정신을 보자.

태권은 옛날부터 「군자(君子)의 무술(武術)」로 불려 왔다. 즉 적의 공격을 받고야 비로소 단련된 수족(手足)으로 이에 대항한다. 「태권은 선수(先手)가 없다」고 한 것도 태권의 본질을 말한 것이다. 태권은 정신과 기술이 겸비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태권의 목적은 강력히 단련된 수족과 우수한 공발기술로서 판자나 기와를 격파하며 비호같이 상대를 일격일축으로써 살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연마를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동시에 정신까지도 아울러 수양하여 덕을 배양한다는 것이다.<sup>61)</sup>

59) 이창후,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학 연구』 1, 2007, 109쪽.

60) 김영선, 「태권도 정신론」 『국기원 1급 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2011, 65쪽.

61) 李元國, 『跆拳道教範』, 進修堂, 1969, 29·31쪽.

이원국의 태권도를 ‘군자의 무술’로 정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은 신체를 단련함과 동시에 정신을 수양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남을 먼저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두었다. 그로 인해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마음과 행동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련을 통해 정신을 수양하여 덕을 배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으로 봤다. 그러한 이원국의 태권도 정신은 결국 「태권도에는 선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태권도의 본질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선수 없다’라는 개념은 지도관 관장을 지낸 윤희병(윤패병)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사도정신(斯道精神)은 인격과 품성을 도야하고 불요불굴(不撓不屈)의 단련에 의하여 건전한 신체를 만들고 그와 동시에 인내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표어와 같이 「당수도(唐手道)는 선수(先手)없다」라는 교훈이 있다. 이 뜻은 상대방으로부터 여하한 해를 받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먼저 공격을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금과옥조만이 인내력과 불요불굴의 정신을 함양하는 점에서 다른 운동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즉 불요불굴이 심신이란 자기의 힘을 제일 유익하게 선용하고 아울러 화랑도(花郎道)정신을 배양 및 선양하는 것이 당수도를 수련하는 참된 의의이며 목적이다.<sup>62)</sup>

윤희병(윤패병) 또한 당수도 즉, 태권도를 통해 인격과 품성을 도야하고 불요불굴의 단련에 의하여 건전한 신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했다. 불요불굴은 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난관도 꺾이지 견디어 나감을 이르는 말이다. 즉, 묵묵히 꿰이지 않는 수행을 통해 인격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또한 ‘당수도에는 선수 없다.’를 가장 요체로 인식하였다. 이원국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화랑도 정신을 배양하고 이를 선양하는 것이 수련의 참된 의의이며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태권도의 기저에는 화랑도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당수도에는 선수 없다’는 개념은 황기의 『화수도교본』이나 최석남의 『권법교본』에도 나타난다. 황기는 “특히 분명히 기할 것은 우리 도에는 「화랑도에는

62) 『武藝時報』 1958년 9월 1일자 「先手없는 武道 唐手道修鍊精神」.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도에 기본 정신이 동시에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sup>63)</sup>라고 하고 있으며, 최석남도 “정신면으로 볼 때 (a) 권법에서는 먼저 손을 댄다는 법은 없다. 모든 형들이 방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공격의 화살은 적의 치명적 혈(급소)에 일격하면 황소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즉시로 황천행인 것이다. 그러나 권법은 먼저 손을 대지 않는 겸양의 덕으로서 그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sup>64)</sup>라고 하여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태권도의 전신이었던 무예를 전파했던 선생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태권도’는 선수가 없다」는 내용을 그 근본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자의 무술’이나 ‘선수 없다’는 개념은 가라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도야마 간켄(遠山寬賢)의 『공수도입문』이나 후나고시 기쨌(富名腰義珍·船越義珍)의 『공수도교범』 또는 모토부 쵸끼(本部朝基)의 『나의 당수술(私の唐手術)』에서는 ‘군자의 무술’<sup>65)</sup>이나 ‘가라테(唐手)에 선수(先手) 없다(唐手に先手なし)’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sup>66)</sup> 이는 이원국이나 윤희병 등이 일본에 유학하면서 오키나와 가라테를 수련했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들을 가리킨 일본인 선생들의 생각이 그대로 선생세대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태권도의 정체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황기도 “사도(斯道)에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다”<sup>67)</sup>라고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화랑도(花郎道)정신을 배양 및 선양하는 것이 당수도를 수련하는 참된 의의이며 목적’이라고 하여 ‘화랑도 정신’과의 연관성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화랑도로부터 태권도 정신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황기가 화랑도 정신을 언급한 것은 좀 더 일찍 부터였다. 1949년에 간행한 『화수도교본』의 내용을 보자.

63) 黃琦, 『花手道教本-花郎徒와 唐手道-』, 朝鮮文化教育出版社, 1949, 17쪽.

64) 崔碩男, 『拳法教本』, 東西文化社, 1955, 21~22쪽.

65) 富名腰義珍, 『鍊膽護身 唐手術』, 榕樹社, 1925, 287쪽.

66) 遠山寬賢, 『空手道入門』, 鶴書房, 1933, 27~28쪽; 富名腰義珍, 『琉球拳法 唐手』, 榕樹書林, 1922, 273~274쪽 · 『鍊膽護身 唐手術』, 榕樹社, 1925, 287쪽 · 『空手道教範』, 廣文堂書店, 1941, 19·289쪽; 本部朝基, 『私の唐手術』(岩井虎伯, 『本部朝基と琉球カラテ』, 愛隆堂, 2000) 46쪽.

67) 黃琦, 『花手道教本-花郎徒와 唐手道-』, 朝鮮文化教育出版社, 1949, 32쪽.

우리나라 독특한 화랑도정신에 입각하여 이의 장점을 섭취하고 체육향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국술(國術)과 충승(沖繩, 오키나와)의 당수의 장점을 채택하여 우리나라 사정과 관습에 의하여 우리 민족성에 부합하도록 개조 발전시키는데 그의 요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sup>68)</sup>

황기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태권도 정신을 설정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 그가 채택한 것은 신라의 무사집단이라 여겨지는 화랑도에서 무예의 정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황기는 태권도의 정체성을 화랑도 정신에 두고 중국이나 일본의 것을 받아들여 변화시켰다고 정리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정도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서 영향을 받았음은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이 아닌 자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맨손무예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는 않다.

이후 간행한 교본에서도 황기는 태권도가 가져야 할 정신의 가장 요체를 “훌륭한 정신을 양성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혼의 발로인 화랑도 정신에 기간을 두고 이를 결부하여 수양하고 나아가서는 사도(斯道)가 무도의 원조이니 만큼 인간 본능인 보신(保身)상으로도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것”<sup>69)</sup>이라 하여 화랑도 정신에서 태권도 정신을 찾고자 하였다. 화랑도와 연결시키는 시도는 앞서 서술한 윤희병의 언급도 있었다. 이는 이 두 사람이 협회 통합 과정에서 지도관의 관장이었던 윤희병과 무덕관 관장이었던 황기가 통합 찬성에 그리 환영하지 않는 입장을 공동으로 취할 정도의 사이였으며, 대한당 수도협회에 같이 몸담은 적이 있다<sup>70)</sup>는 점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화랑도와 연관을 시키려는 시도는 최석남에 의해서도 행해졌다. 최석남은 “화랑도와 불교는 혼연 일체인 것이며 불교와 권법도 또한 불가불리(不可不離)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 따라서 화랑도와 권법상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음은 말할 것 없는 것이다……화랑들은 그들의 심신의 단련뿐만 아니라 무기로서 권법을 수련해 올 것은 첩언(贅言)을 요(要)치 않은 것으로 사유

68) 黃琦, 『花手道教本-花郎徒와 唐手道-』, 朝鮮文化教育出版社, 1949, 33~35쪽.

69) 黃琦, 『唐手道 教本』, 契郎文化社, 1965, 11쪽.

70) 이에 대해서는 허인욱,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137~147쪽 참조.

하는 바이다.”<sup>71)</sup>라고 하여, 불교와 화랑도, 화랑도와 권법을 연결시켰던 것이다. 황기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2. 우리의 10개 신조

- 一. 나라에 충성: 화랑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민족의 대의에 순(殉)함.
- 一. 부자간 효자(孝慈): 아들은 부모에 효하고, 부모는 아들에게 자함.
- 一. 부부의 애정: 이성간 정과 애로써 화합하여 인류 행복 발전의 모체가 됨.
- 一. 형제지간 상협(相協): 형제간 협조화목(協調和睦)하여 단결함.
- 一. 노소지간 경보(敬保): 예의겸양(禮儀謙讓)하며 정당한 약자를 보호함.
- 一. 사제(師弟)간 의리: 의정(義情)으로 진리(眞理)를 배움
- 一. 붕우(朋友)간 유신(有信): 친우는 물론 전 인류는 상호 신임 화합(信任和合)하여 평화, 행복함.
- 一. 살생분별(殺生分別): 선악을 공평 정당하게 구별함.
- 一. 임전무퇴(臨戰無退): 실력 용기를 구비 매진하여 정의를 위해 희생.
- 一. 실천필부(實踐必附): 희망을 품고 반드시 실행함.

## 3. 정신수양상 5개 요소 및 중점

### 가) 요소

- (1) 자연에 접촉 (2) 환경 (3) 경험 (4) 양심 (5) 교양

### 나) 중점

- (1) 자연애호심 (2) 기세 (3) 예의심 (4) 겸양심 (5) 감사심 (6) 희생심  
(7) 용기심 (8) 정조심 (9) 인내심 (10) 독서심 (11) 중용심 (12) 내강외유<sup>72)</sup>

무덕관의 10개 신조는 충과 효 등의 유교정신의 영향과 함께 사군이충(事君以忠: 충성으로 임금을 섬김), 사친이효(事親以孝: 효도로 아버지를 섬김), 교

71) 崔碩男, 『拳法教本』, 東西文化社, 1955, 12쪽.

72) 黃琦, 『花手道教本-花郎徒와 唐手道-』, 朝鮮文化敎育出版社, 1949, 33~35쪽.

우이신(交友以信: 믿음으로 벗을 사귀), 임전무퇴(臨戰無退: 전쟁에 나아가 물러서지 않음), 살생유택(殺生有擇: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음) 등의 화랑도들의 다섯 가지 계율인 세속오계(世俗五戒)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랑도의 정신을 당수도 즉, 태권도의 정신의 바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인내’, ‘예의’, ‘겸양’, ‘감사’, ‘희생’ 등등의 정신 수양과 관련된 항목들도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조 등을 통해 황기가 추구하는 수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활(活)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수련 목표는 「활(活)」에 있다. 즉 남을 공격이나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삶」에 있는 것이다. 적이라 할지라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 원칙에 입각하여 「활(活)」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침을 세우고 미와 선, 속도에 치중하여 과학적으로 수련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다.<sup>73)</sup>

황기는 수련의 목표를 활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활은 공격과 방어를 넘어 한 단계 진보해, 삶을 그 기본 정신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진수는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도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sup>74)</sup>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최석남은 무예 수련이 주는 정신에서는 의지력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권법 수련에는 강고한 의지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권법을 수련함으로써 의지력이 함양되지만 의지력이 있어야만 권법 수련도 계속되고 또한 그 묘기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sup>75)</sup>라고 하여 의지력을 그 기본정신으로 설정하였다.

1958년 간행된 박철희의 『과사권법』의 「수련목적」에는 태권도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73) 황기, 『수박도대감』, 삼광출판사, 1970, 57쪽.

74) 이진수, 「무도의 차원에서 본 태권도」 『일본무도연구』, 교학연구사, 1999, 403쪽.

75) 崔碩男, 『拳法教本』, 東西文化社, 1955, 17쪽.

## 제1항 정신수양

권법무도에 있어서는 기술 즉 수련을 통해서 혹서(酷暑) 냉한(冷寒)을 가리지 아니하고 난행고행(難行苦行)하는 육체의 단련으로서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 함양되며 진지한 태도로서 하나의 예도(藝道)에 정진할 때 생기는 용기·예절·염치·겸양·극기·정의감·파사현정(破邪顯正)의 높은 제(諸) 덕성(德性)을 연마하여 정도(正道)로서 국가사회의 번영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진성보국(盡誠報國)의 건전한 정신이 배양된다.<sup>76)</sup>

박철희는 ‘용기’·‘예절’·‘염치’·‘겸양’·‘극기’·‘정의감’·‘파사현정(破邪顯正)’의 7가지를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이해했다. 이 가운데 파사현정은 사된 것을 깨트리고 바름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증언을 보면, 그의 저서 『파사권법』의 파사는 이 파사현정에서 나왔다고 하며, 그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을 지닌 『활인권법(活人拳法)』과 인간을 완성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완인권법(完人拳法)』 등의 교본을 이어서 3부작으로 계획했다<sup>77)</sup>고 한다. 즉 그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인간 완성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인용한 글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황기가 언급한 활인의 단계를 넘어, 완인의 단계로 가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데, 완인이란 권법 즉,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완성된 인간은 올바른 길을 걸으며, 이를 통해 결국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961년 청용관의 「태권도청용관 태권도연무대회 겸 제16회 승단급심사」 전단지에서 나타나는 태권도 정신을 보자.

태권도는 정신수양을 하는데도 최적하며 언제 어디서나 용이하게 계속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정신통일법이기도 하며 태권도를 오래 동안 수련하면 예절이 밝아지고 염치를 알며 겸양할 줄 알

76) 박哲熙, 『破邪拳法』, 講德院士道會 泗雲塾, 1958, 17쪽.

77) 허인옥, 「四雲堂의 태권도이야기-태권도, 나의 길」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227쪽).

고 극기심이 생기는 사람이 되고 원만한 정신과 인품이 배양되는 신사도인 것입니다.<sup>78)</sup>

태권도 수련을 통해 예절과 염치 그리고 겸양과 극기심을 배양하여 원만한 정신을 가진 인물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태권도 수련을 통한 정신의 배양이 사회생활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교윤은 1965년에 발간된 『백만인의 태수도교본』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고로 무도란 인격 완성의 요소인 정신수양에 있다.……태수도 수련의 목적은 어떠한 역경에 부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당면한 일을 침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정력(安定力)을 배양시킴과 아울러 어떠한 고통이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르는 데 있다. 즉 인격완성을 위한 정신도야가 그 목적인 것이다.<sup>79)</sup>

이교윤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안정력과 인내력을 키우는 정신도야를 그 목적인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안정력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 또한 태권도 수련과 인격 완성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협회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최홍희도 태권도 정신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태권도 정신은 1966년에 간행한 그의 저서 『태권도교본』에 잘 나타나 있다.

태권도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한 “태권에는 선수(先手)가 없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개인의 싸움의 도구로 삼거나 호전적인 잡술의 그릇된 사상과는 판이하여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고 약자를 도우려는 군자도(君子道)인 것이다. 이 숭고한 정신을 망각한다면 제 아무리 발군의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참다운 태권가라 할 수 없다. “어진 자에 적이 없고 강한 자에게 말이 없

78) 『跆拳道靑峯館 跆拳道演武大會 兼 第16回昇段級審査』檀紀 4294년 3월 26일.

79) 李敎允, 『百萬人의 跆拳道 敎本』, 토픽出版社, 1965, 15쪽.

다”-하였거니와 고단자(高段者)라고 자칭하며 요정이나 기타 여럿이 모인 곳에 서 준비했던 단증(段證)을 시위함으로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부류는 태권가는 고사하고 태권의 위력만 들고 필요 없이 날뛰는 불량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80)</sup>

최홍희 또한 다른 선생 세대의 인물들처럼 ‘태권도에는 선수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그도 쇼또칸 가라테를 수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술이 있게 된 것이다. 그는 태권도는 자신을 보호하고 약자를 돕는 군자의 도로 인식하면서, 함부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경계했다. 겸손이 바탕에 깔리지 않은 태권도인을 낮게 본 것이다.

이어 최홍희는 그가 생각하는 태권도 정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당시 교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960년대 초반부터 오도관에는 기본정신이 존재했음은 다음 신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아래의 흑판에는 한자로 「태권도정신」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百折不屈)이라고 써 있고 그 옆엔 월남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 교관단장인 남태희 소령(7단·오도관장)과 김승규 대위(5단)가 태권도복 차림으로 도장에 들어서니까 「차렷」하는 우리말 구령과 함께 전원이 차렷 자세, 「경례」의 구령으로 일제히 거수경례를 한다.<sup>81)</sup>

이 기록은 월남 즉 베트남에 파견된 태권도교관단과 관련된 신문 기사의 일부인데, 태권도 정신으로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이 있었음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오도관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지만, 남태희 등이 언급되어 있어 오도관의 태권도 정신임을 알 수 있다. 이 정신은 현재에도 국제 태권도연맹(ITF)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 5대 정신에는 오도관 창설자인 최홍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정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홍희가 1972년에 펴낸 『태권도교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인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0) 崔泓熙, 『跆拳道教本』, 誠和文化社, 1966, 38쪽.

81) 『동아일보』 1963년 10월 16일자 「越南 幄쓰는 우리 跆拳道」.

예의: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규범으로 사람을 교화하는 수단이며 또한 집단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성인군자들이 정한 불문율이라 하겠다.

염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만약에 그릇된 일을 했을 때에는 비록 삼척동자나 하찮은 사람 앞이라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등골에 땀을 흘리는 양심을 말한다.

인내: 고단자이건 완벽한 기술의 소유자이건 간에 어떤 일을 달성하자면 먼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매진함으로써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어떤 고난에 부딪치더라도 참고 그를 극복하는 것이 비결의 하나이다.

극기: 도장 내외를 막론하고 자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공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곧 사고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겸손하고 절제있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허영심에 사로잡힌다면 무도인으로서 위치를 잃게 된다.

백절불굴: 올바른 태권도인이라면 평소에는 겸손하고 정직함은 물론이지만 정의감에 입각한 사람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이건 또한 그 숫자가 얼마이든 추해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과감히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sup>82)</sup>

오도관의 태권도 정신 가운데 ‘예의’와 ‘염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극기’ 그리고 ‘백절불굴’은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겸손은 ‘예의’나 ‘염치’에서 설명되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실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1960년대 이전의 태권도 정신에 대해 살펴봤는데,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일본에서 가라테를 배우고 우리나라에 보급한 이들이 ‘선수는 없다’는 무예적인 측면의 정신에 치중을 했다면, 1960년대의 무예 정신이 완전한 인격체를 설정한 후 그러한 인간상으로 가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정신을 설정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최홍희는 현실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개념들을 사용해, 태권도 정신을 설정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82) 최홍희, 『태권도교서』, 정연사, 1972, 14~15쪽.

## 2) 9대관의 관훈으로 본 태권도 정신

5대 모체관에서 분화하거나 파생된 9대관들은 모두 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관시(館是)’ 혹은 ‘관훈(館訓)’을 두었다. 관훈이라는 것은 관의 기본적인 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핵심어이다. 따라서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sup>83)</sup>의 도움을 받아, 관시(관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9대 관의 관시(관훈)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구 분	창설자	창설년도	관시(관훈)
청도관	이원국	1944	성실, 창의, 노력
무덕관	황기	1945	무실, 성의, 정의
지도관	전상섭*	1946	나를 위한다(己爲), 관을 위한다(館爲), 나라를 위한다(國爲)
송무관	노병직	1946	예의존중, 극기경양, 부단노력, 최웅만부(最雄萬夫), 문성겸전(文成兼全)
창무관	윤병인*	1946	충효, 성실, 인내
오도관	최홍희	1954	우리들 관원은 무도정신에 입각하여 심신을 단련함 우리들 관원은 상호 친애하여 단결을 굳게 함 우리들 관원은 관칙을 엄수하고 사범 명령에 복종함
정도관	이용우	1954	나는 땀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무도인이다(염치)
한무관	이교윤	1956	자기를 위해 근면한다, 관을 위해 헌신한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강덕원	박철희	1956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국민체위향상을 도모하자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정도선행하자.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민족사회의 모범이 되자.

\* 지도관과 창무관의 창설자는 엄격히 말하면 전상섭과 윤병인이 아니다. 전상섭은 조선연무관 권법부, 윤병인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권법부의 창설자로, 6·25 이후 설립된 지도관은 윤쾌병과 전상섭의 제자 이종우가, 창무관은 윤병인의 제자 이남석이 창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83)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자연과 사람, 2002, 26~39쪽.

이 가운데 3대 송무관 관장을 지낸 강원식은 송무관에는 60년대까지 관원선서는 존재했지만, 중앙도장에는 관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라도 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84)</sup> 따라서 송무관의 관훈은 당시 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8대 관의 관훈을 먼저 정리한 후, 송무관의 관훈을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다.<sup>85)</sup>

관훈들을 관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청도관은 ‘성실’·‘창의’·‘노력’의 3가지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창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노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애를 씀. 또는 그렇게 들인 힘’을 의미한다. 즉 청도관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수련생이 정성스럽고 참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애를 쓰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런데 1950년대 청도관의 정신과 관련해 이와는 다른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진수가 언급한 청도관의 수련목표를 보자.

우리는 무도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을 단련한다.

우리는 상호간에 친하여 단결을 도모한다.

우리는 관칙을 준수하고 사범의 명령에 복종한다.<sup>86)</sup>

심신 단련과 단결 도모 그리고 관칙 준수와 사범 명령에 복종한다는 수련과 관련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수련 목표는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표 3)에서 오도관의 관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도관은 ‘우리들 관원은 무도정신에 입각하여 심신을 단련함’·‘우리들 관원은 상호 친애하여 단결을 굳게 함’·‘우리들 관원은 관칙을 엄수하고 사범 명령에 복종함’이라는 관훈을 두었는데, 청도관의 수련목표와 동일하다.

84) 허인옥,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60쪽.

85) 후나고시 기진의 『공수도교범』에는 정신수양과 관련해 ‘용기’·‘예절’·‘염치’·‘겸양’·‘극기’를 들고 있다(富名腰義珍, 『空手道教範』, 廣文堂書店, 1941, 18쪽). 국내 관들에 보이는 관훈이 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86) 이진수, 『무도의 차원에서 본 태권도』 『일본무도연구』, 교학연구사, 1999, 403쪽.



그림 2. 1970년대 이전의 수련 모습

- \* 수련자의 뒷벽에 관원선서가 걸려 있는데, 청도관이나 오도관의 관원선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홍희가 태권도정신으로 내세운 것이 ‘예의’ · ‘염치’ · ‘인내’ · ‘극기’ · ‘백절불굴’이었다는 점과 같이 생각하면, 이상한 감이 없지가 않다. 오도관의 관훈은 최홍희가 정리한 5대 정신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진 자료를 보면, 이는 ‘관원선서’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관훈과는 별도로 관원들이 입관할 때 도장 내에서 수련을 하기 위한 제정한 것으로, 관 내의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된 문구라 판단된다.

청도관의 관원선서가 오도관의 것과 동일한 사실은 오도관의 창설자인 최홍희가 청도관의 명예관장을 지낸 사실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 최홍희는 이원국이 일본으로 밀항하기 전인 1950년 말 부산 동래에서 손덕성의 입회 하에 이원국으로부터 청도관을 인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은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 사회의 직책을 가질 수 없어서 손덕성을 관장으로 자신을 명예관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최홍희

가 1956년에 청도관의 명예관장이었음은 청도관 단증을 통해 증명이 된다.<sup>87)</sup> 적어도 이 당시까지는 청도관과 최홍희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여겨지며, 이 때 오도관의 관훈이 청도관에 이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도관의 관원선서는 관원의 단결과 사범에 관한 복종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오도관이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립된 탓이라 여겨진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이 선서가 청도관에 유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지도관의 관훈인 ‘나를 위한다(己爲)’·‘관을 위한다(館爲)’·‘나라를 위한다(國爲)’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관에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는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지도관에는 청도관이나 오도관처럼 관원선서가 있었다.

나는 관규(館規)를 준수하고 관명에 절대 복종하겠다.

나는 관정신(館精神)을 받들어 인격을 완성하겠다.

나는 관의 새로운 위업을 창조하는데 몸과 맘을 바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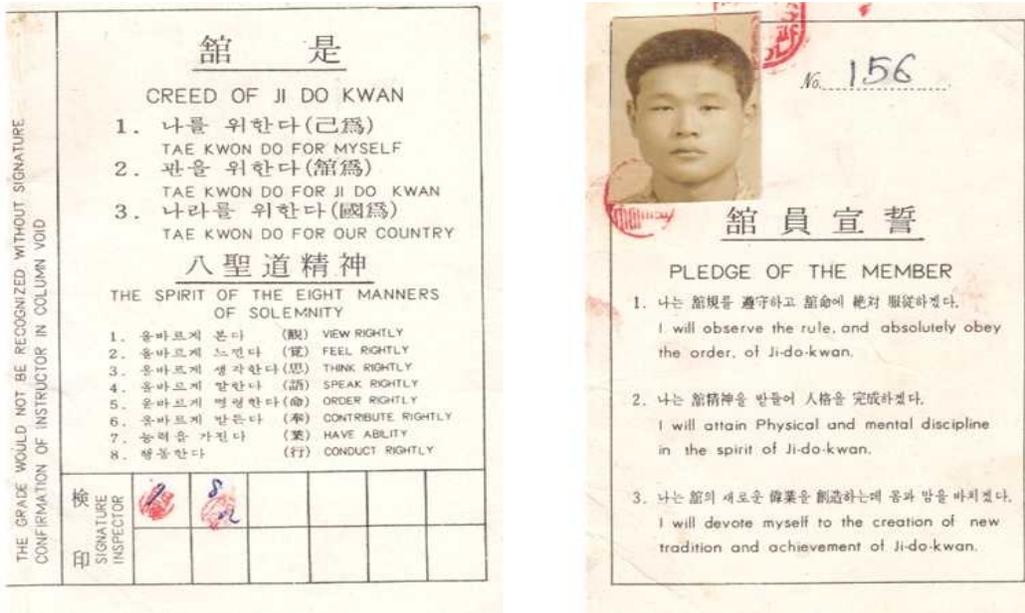


그림 3. 지도관의 단증에 보이는 관시(관훈)와 관원선서

지도관의 관원선서는 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함께 충성을 다하라는 것과

87) 허인욱,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46쪽.

함께 인격 완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외에 관훈과는 다른 ‘팔성도(八聖道) 정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신이 있었다.

올바르게 본다.	관(觀)
올바르게 느낀다.	각(覺)
올바르게 생각한다.	사(思)
올바르게 말한다.	어(語)
올바르게 명령한다.	명(命)
올바르게 받든다.	봉(奉)
능력을 가진다.	업(業)
행동한다.	행(行)

8성도는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념(正念)’ · ‘정정진(正精進)’ · ‘정정(正定)’의 팔정도(八正道)를 본뜬 것으로 파악된다. 관훈이 공적인 차원에 가깝다면, 8성도는 개인의 성찰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덕관의 관훈은 ‘무실’ · ‘성의’ · ‘정의’였다. ‘무실’은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씀’, ‘성의’는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뜻’,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한다. 참되고 실속 있으며, 진실되고 정성스럽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창무관의 관훈은 ‘충효’ · ‘성실’ · ‘인내’였다. ‘충효’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다’는 의미로 정성스럽고 참되게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88)</sup>

한무관의 관훈은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에는 ‘자기를 위해 근면한다.’ · ‘관을 위해 헌신한다.’ ·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1975년 한무관 책자에는 「관훈」에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발전상」의

88) 류병관은 윤종욱 경북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의 언급을 따라, 창무관의 관훈이 ‘예의·염치·인내·극기’였다고 하였다(류병관, 「태권도 수련가치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7, 1996, 190쪽.

1960년 사진에는 ‘정신수양’ · ‘무언실천(無言實踐)’ · ‘근면’ · ‘노력’ · ‘인내’가 도장 벽면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89)</sup> 1960년대의 관훈이 1970년대에 변경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러한 점은 한무관장인 이교윤이 저술한 『백만인의 태수도교본』에 추천사를 쓴 당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장인 김명복(金明福)은 “‘정신수양’과 ‘무언실천(無言實踐)’이라는 관훈(館訓)으로 문학생들의 정신력을 배양해 주며”<sup>90)</sup>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무언실천’은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된다.

한무관의 관훈 가운데 근면은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다’의 의미로, ‘자기를 위해 근면한다.’는 ‘자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림 4. 1960년 한무관 단체 사진

\* 사진 뒷 면 좌측 상단에 ‘정신수양’·‘무언실천’·‘근면’·‘노력’·‘인내’라는 5가지 용어가 보인다. 이 5가지 용어는 당시 한무관의 관훈으로 여겨진다.

89) 『태권도 한무관』 앨범, 1975.

90) 李教允, 『百萬人의 跆拳道教本』, 토픽出版社, 1965, 2쪽.

‘관을 위해 헌신한다.’에서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관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고, 사회적으로는 관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고 국가에는 충성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강덕원에는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국민체위향상을 도모하자.’ ·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정도선행(正道善行)하자.’ ·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민족사회의 모범이 되자.’를 서도훈(誓道訓)이라는 관훈이 있었다.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국민체위향상을 도모하자.’는 개인의 수련을 전 국민의 체력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두고 있으며,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정도선행(正道善行)하자.’는 수련을 올바른 길을 착하게 가자는 개인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민족사회의 모범이 되자.’는 수련을 통해 민족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되자는 사회적 의미에 두고 있다. 강덕원 창설자인 박철희가 저술한 『파사권법』에는 당시 도장 내부에 서도훈이 걸려 있는 사진이 있는데, 서도훈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정도선행’, 우측에는 ‘진성보국(盡誠報國)’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 誓 道 訓

- 一. 우리는 武道를 修鍊하여 國民體位向上을 圖謀하자.
- 一. 우리는 武道를 修鍊하여 正道善行하자.
- 一. 우리는 武道를 修鍊하여 民族社會의 模範이 되자.

그림 5. 『파사권법』에 보이는 강덕원 도장 내부의 사진

‘진성보국’은 ‘정성을 다하여 나라를 보호하여 지킨다.’라는 뜻 정도로 이해된다. 태권도 수련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도관은 ‘나는 땀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무도인이다’라는 관훈을 두었는데, 이는 무예수련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이다. 다른 관의 관훈보다 간략하며, 사회적인 내용이 아닌 수련자 개인의 정신도야에 집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송무관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였다는 관훈에 대해 살펴보자. 그 관훈에는 「예의존중」·「극기겸양」·「부단노력」·「최웅만부(最雄萬夫)」·「문성겸전(文成兼全)」이다. 이 가운데 「예의존중」의 예의는 ‘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말한다.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극기겸양」의 극기는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따위를 이성적인 의지로써 눌러 이긴다’이고 겸양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의 의미로 예의를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는 겸손한 마음을 갖을 것, 「부단노력」의 노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애를 씀. 또는 그렇게 들인 힘’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끊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힘을 들인다. 「최웅만부」의 최웅은 최고의 영웅이고 만부는 만인의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을, 「문성겸전」은 문무겸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관훈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 사회에 관한 사항, 국가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사항들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관훈의 정리

구 분	館 訓
개인적 차원	「성실」·「창의」·「노력」·「무실」·「성의」·「정의」·「성실」·「인내」·「자기를 위해 근면한다」·「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정도선행(正道善行)하자」·「나는 땀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무도인이다」·「충효」*
사회적 차원	「관을 위해 헌신한다」·「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국민체위향상을 도모하자」·「우리는 무도를 수련하여 민족사회의 모범이 되자」·「관을 위한다(館爲)」
국가적 차원	「나라를 위한다(國爲)」·「국가를 위해 충성한다」·「충효」*

개인적 차원은 개인이 수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제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은 수련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국가적 차원은 충성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 국가적 차원으로 분류한 「충효」\*의 ‘효’는 개인적 차원에서 언급이 가능한 부분이다. 관훈이나 관원선서들에는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강제성이 느껴지는 내용의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1970년대 이전 사회가 개인보다는 공공이익을 우선시한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1970년대 이후의 태권도 정신

### 1) 태권도 공공 기관이 보는 태권도 정신

공식적인 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태권도 정신은 협회에서 1972년에 간행한 『태권도교본』(품세편)에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자.

#### 「태권도의 정신적인 의의(내적인 의의)」

인격형성의 길잡이……투기 중의 투기인 태권도는 강인하고 용기있는 성품으로 변모시켜 매사에 주저없이 앞장설 수 있는 통솔력을 길러 준다. 통솔력과 강한 담력은 모든 일에 자신을 불어 넣어 주고 자신력은 심리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하며 의연해진다. 때문에 의연한 태도는 인내성을 가져오고, 인내는 겸양을 낳게 된다. 겸양은 희생적 정신으로 자아를 극복하게 되고 협동과 질서를 유지하여 정돈된 사회를 이룩하여 비굴하지 않은 사회 봉사자로서 뚜렷한 개성을 창조한다. 그럼으로 태권도는 하나의 인간을 다듬어 바르고 참된 인물을 만드는 근원이 되며 애국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수련- 반응력→판별력→담력→자신  
 자신력→자위  
 자주→자립→의연  
 통솔력→용기  
 협동→애족→애국<sup>91)</sup>

『태권도교본』의 태권도 정신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용어를 통해 정신을 제시하기보다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변화와 이를 통해 다시 가질 수 있는 정신적 변화를 합리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련을 통한 반응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것은 곧 어떠한 사항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판별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수련을 통한 자신감의 상승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한 자신감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민족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판별력에서 담력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앞서의 과정을 거쳐 자신력이 생기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용기를 갖게 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1983년도에 간행된 『태권도』지에 김운용의 이름으로 게재된 「머릿글」에는 태권도인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 태권도의 요직자와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태권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첫째 청렴(淸廉)하고, 둘째 유능하여야 하며, 셋째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넷째 덕망(德望)을 갖추어야 하며, 다섯째 맡은 직무에 분골쇄신하는 자세가 되도록 내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의 성품을 갖추어야 함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전 태권도인이 바라는 요망일 것입니다.<sup>92)</sup>

91)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교본』, 1972, 14~15쪽.

92) 『태권도』 37, 「머릿글」 ‘유비무환의 태권도인이 되자’, 1983.

김운용이 바라는 태권도인의 모습은 청렴하고, 유능하며, 공평무사하고 덕망을 갖추어야 하며, 맡은 직무에 분골쇄신하는 자세를 가진 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운용의 개인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그가 국기원 원장이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견해로만 보기도 어렵다.

이 김운용의 언급은 태권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를 직접 언급하기는 했지만, 인격 완성보다는 사회생활의 지침같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태권도 정신으로까지 연결짓는 것은 과한 해석일 수도 있다. 사회라는 틀 안에서 태권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한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태권도 정신과 관련해 1987년에 발간된 국기원의 『태권도교본』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태권도 정신은 고대로부터 흘러 내려온 민족 고유의 전통과 사상을 발전시켜 신라인(新羅人)의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킨 화랑도정신(花郎徒情神)과 맥락을 같이 하였던 것이다. 화랑도정신은 한민족의 정신적 지등인 선사상(禪思想)을 바탕으로 불교(佛敎)의 호국사상(護國思想)과 유교(儒敎)의 충효사상(忠孝思想), 도교(道敎)의 무언실행(無言實行)이 합류되어 주류를 이룬 자주의 정신이며, 진취적 기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하나의 민족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우리는 태권도의 내면적 정신세계에 흐르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 평화정신, 정의를 수호하는 결백정신(潔白情神) 및 투철한 책임감을 하얀 도복 안에 품고 한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태권도 정신을 확립·실천함으로써 이를 생활화하고 나아가 조국 발전의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켜 조국번영의 선봉이 되는 긍지 높은 태권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93)</sup>

이 당시 국기원은 태권도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과 ‘화랑정신’ 그리고 불교의 ‘호국정신’·유교의 ‘충효사상’·도교의 ‘무언실행’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평화’·‘결백’·‘책임감’을 그 바탕으로 하여 태권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교본에는 그 전에는 언급이 되지 않던 ‘홍익인간’을 거론하고 있어

93) 국기원, 『태권도 교본』, 오성출판사, 1987, 60쪽.

주목이 된다. ‘홍익인간’은 다들 알다시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다. 신라시대보다 앞선 우리 역사의 시원이라고 하는 단군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홍익인간’ 정신의 채택은 태권도가 우리 민족의 시작부터 함께 한 무예라는 전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 모든 문화와 관련을 맺고 있어 태권도만의 독자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6년에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간행한 『태권도 역사·정신에 관한 연구』에서는 “태권도 정신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신라의 화랑도정신, 조선의 선비정신, 그리고 6·25 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예(禮)를 숭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sup>94)</sup>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2009년에 펴낸 『태권도학』에는 태권도정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의 산물이라는 언명은 오랜 수련의 결과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그것은 일상적 행동에서 드러나는 태권도인의 신념, 자제력, 의지, 협력과 배려, 삶의 태도 등으로 표상되는 가치로서 객관적 정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무도가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범주로서 기술의 본질, 사상, 철학 등 정신의 내면적인 산물의 총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정신은 태권도 수련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며 최고의 정신적 수준이다. 정신은 무엇보다 인간의 행동의 장이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존재의 현현이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다른 것(상징, 기술, 윤리적 행위 등)에 일정한 구조를 부여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생’ 개념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 존재에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은 전 생명체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삶의 깊이와 힘을 증가시켜 상호 간의 도움과 평화와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상생’ 정신에 싹트는 것이라 하겠다.<sup>95)</sup>

94) 이규석 · 이승환 · 한형조 · 안용규 · 나영일 · 노영구, 『태권도 역사·정신에 관한 연구』, 태권도진흥재단, 2006, 276쪽.

95) 이경명 · 서민학 · 김주연 · 조춘환 · 정현도, 『태권도학』, 세계태권도연맹, 2009, 101쪽.

태권도 정신은 오랜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 체득되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정신 내면에 형성되는 모든 결과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태권도 정신을 ‘상생’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은 다른 연구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생이 태권도 기술 혹은 수련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데서 아쉬움을 준다.

현재 태권도 공적 기관인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태권도 정신<sup>96)</sup>은 다음과 같다.

[국기원] : 앞으로 국기원은 태권도가 생활무예스포츠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극기, 희생, 봉사 등 태권도 정신이 전 세계인의 생활 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태권도 역사, 정신 등의 문화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sup>97)</sup>

[세계태권도연맹] :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 태권도는 한민족이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온 고유의 사상을 담고 있다. 태권도 정신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 또는 화랑도 정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이며 한민족의 근본 사상이다. 이 이념들은 역사 속에서 화랑도 정신으로 발전해 오늘날 태권도 정신이 되었다.……‘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인간’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번영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태권도 정신이 단군의 건국이념이었던 이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태권도’라는 단어가 ‘싸움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도함’을 의미한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한편, ‘재세이화’는 ‘온 세상이 하늘의 이치에 맞게 존재

96)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taekwondo.org/>)」(2014년 11월 26일 검색)에는 태권도 정신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홈페이지의 태권도 소개에 “태권도가 표방하는 수련의 목적은 수련자를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 기틀을 보다 개선하겠다는 지향점을 갖는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태권도의 교육적 역할은, 자아완성에의 의지를 실천하도록 안내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서 태권도 수련자는 평화지향적인 기술체득원리를 이해하며 빈번하고 반복적인 예절 교육을 통해 자칫 빠지기 쉬운 자기중심적 삶을 뛰어넘어 인간생활에의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인간생활에서의 덕목들이 교육으로서 태권도가 추구하는 바이며 바로 이점이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관이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다.

97) 「국기원 홈페이지(<http://www.kukkiwon.or.kr>)」, 국기원 소개(2014년 11월 26일 검색).

함'을 뜻한다. 태권도는 여러 활동을 단순히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원리이다. 또, 태권도의 원리는 모든 창조의 원리이며, '재세이화'에서 말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따라서 인간은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하늘의 이치에 맞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sup>98)</sup>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신을 '극기'와 '희생' 그리고 '봉사' 등으로 보고 있는 반면, 세계태권도연맹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홍익인간'과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로 세상을 다스려 교화시킨다는 의미의 '제세이화' 그리고 '화랑도 정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기원의 '극기'·'희생'·'봉사'나 세계태권도연맹의 '홍익인간'·'제세이화'·'화랑도 정신'이 어떤 의미에서 태권도 정신으로 선택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 정신은 1987년에 간행한 『태권도 교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태권도계를 이끌고 나가는 공적 기관이 간행한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내용이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혹은 기관에 따라 그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어도 공공기관 간에는 서로 통일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어서 개별 연구자들이 제시한 태권도 정신에 대해 살펴보자.

## 2) 연구자들이 본 태권도 정신

1980년대에 들어서는 공공 기관의 견해보다는 개별 연구자들의 발표 글이 주류를 이루었다. 태권도 정신을 전통철학에서 찾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논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설명이 어려운 동양 철학이 중심이 되어 난해하거나 또는 거대담론에 치우쳐져 수련자들이 태권도 정신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견해들도 있다.

1980년대 이후 태권도 정신과 관련된 글은 먼저 전통사상에서 태권도 정신을 찾는다는 특징이 있다. 김종석은 삼국시대 무도정신과 태권도를 연결했으며,<sup>99)</sup>

98) 「세계태권도연맹(WTF) 홈페이지(<http://www.wtf.org/>)」, 태권도 소개 철학(2014년 11월 26일 검색).

99) 김종석, 「跆拳道 武道精神의 考察: 三國時代를 중심으로」,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

하태은 또한 ‘홍익인간’과 ‘화랑도 정신’, ‘불교사상’과 ‘유교 사상’ 그리고 ‘동학 사상’을 태권도 정신으로 이해했다.<sup>100)</sup> 이러한 인식은 이규석에게도 나타나는데, 이규석 또한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재래신앙과 유교·불교·도교 등의 전통 사상 속에서 발생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면서, 태권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극기’·‘술선수범’·‘예의범절 준수’를 꼽았다.<sup>101)</sup> 권혁중은 한국의 얼과 태권도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홍익인간’과 ‘풍류사상’, ‘원융합일(圓融合一)’ 그리고 ‘선비사상’을 태권도 정신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민족 특유의 정서나 감정을 말하는 ‘한국의 얼’과 태권도 정신은 정의의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책임을 중히 여기는 선비 기질과 미물도 함께 호흡하는 만민평등 사상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 홍익인간, 평화정신, 의를 수호하는 결백정신 및 투철한 책임감이 우리의 얼이며 곧 태권도 정신이라는 것이다.<sup>102)</sup> 김홍석 또한 ‘홍익인간’·‘평화정신’·‘결백정신’·‘투철한 책임감’ 등을 태권도 정신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했는데,<sup>103)</sup> 권혁중과 김홍석의 태권도 정신은 국기원에서 1987년에 발행한 『태권도 교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sup>104)</sup>

오노균은 태권도정신에 대한 의미를 논하기 위해 태권도정신의 모체라고 평가하고 있는 풍월주 김유신의 무예수련의 민속학적 무술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고구려의 무예 수련이 신라 화랑 무예 수련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았으며, 경주 석굴암의 금강 역사상과 같은 겨루기형 동작을 태권도의 대련 막기 동작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화랑도의 정신이 곧 태권도의 정신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sup>105)</sup>

文, 1990.

100) 河泰殷, 「韓國傳統思想과 跆拳道 情神에 關한 研究」,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101) 李圭錫, 「東洋思想과 跆拳道情神에 關한 考察」 『體育科學研究論叢』, 1993.

102) 권혁중, 「한국의 얼과 태권도 정신」 『韓國레저스포츠學會誌』 3, 1999.

103) 김홍석, 「한국전통사상을 통한 태권도정신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慶州大學校 論文集』 14, 2001.

104) 최상진·고봉수가 저술한 『태권도 개론』과 김갑수가 저술한 『태권도 이론 및 실기』는 『태권도 교본』의 정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최상진·고봉수, 『태권도 개론』, 신아출판사, 2005, 39쪽·김갑수, 『태권도 이론 및 실기』, 흥경, 2003, 30쪽).

105) 오노균, 「김유신과 화랑정신이 현대 태권도에 미친 영향」 『세계태권도학회지』

정세구 또한 전통적인 사상에서 태권도 정신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고대 신교(神敎)의 특성에서의 ‘풍류’와 불교로부터 추출한 ‘원융회통’ 그리고 유교적 행동규범으로 추구하는 ‘의리’와 ‘경로효친’에 ‘자연보존’과 ‘인간성취’를 추가하였다. 이어 신라의 화랑도의 ‘세속오계’에서 뽑아낸 ‘임전무퇴’와 ‘살생유택’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인내’와 ‘극기’를 태권도 정신으로 선정하였다.<sup>106)</sup>

이렇게 전통사상에서 태권도 정신을 추출해 내는 입장은 이창후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태권도인의 덕윤리 연구」에서 태권도의 덕을 “정신에서의 경건함, 기법에서의 용기, 수련에서의 성실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조선 성리학의 핵심적인 덕목인 경(敬)과 성(誠),에 불교의 공(空) 사상을 가미하였으며, 여기에 용(勇)을 더한 것이다.<sup>107)</sup> 이창후는 태권도의 정신으로 ‘삼재강유론(三才剛柔論)’을 제안했는데, 안으로는 경(敬)하여 밖으로는 성(誠)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義)와 예(禮)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8)</sup>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태권도 정신을 전통사상에서 찾으려는 노력 외에 최홍희가 제정한 태권도 5대 정신 즉, ‘예의’·‘엄치’·‘인내’·‘극기’·‘백절불굴’의 정신<sup>109)</sup>을 무술이나 무예 혹은 무도와 연관지어 살펴보고 하거나,<sup>110)</sup> 전통사상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노력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병술·노영선의 견해이다. 그들은 ‘몸은 정신 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몸의 수련을 통해 인격을 고양할 수 있다는 일여(一如)적 관념’을 바탕으로 삼고, 태권도에 융화되어 있는 전통사상을 되새기고 태권도인이 응당 갖추어야 할 자세임을 확인하였다. ‘태권도 5대 정신’은 유교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전통적

3, 1999, 1~23쪽.

106) 정세구, 「청소년 인성교육 목표로서의 세계태권도정신 연구」 『서울大師大論叢』 66, 2003, 54~68쪽.

107) 이창후, 「태권도인의 덕윤리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4-3, 2013.

108) 이창후,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학연구』 1, 2007.

109) 김기홍·한국선·김동규는 『태권도의 역사철학적 탐구』에서 최홍희의 5대 정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김기홍·한국선·김동규, 『태권도의 역사철학적 탐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89쪽).

110) 방연진·곽정현, 「무술, 무예, 무도에 내재되어 있는 태권도 정신」 『체육학 논문집』 33, 2005.

으로 강조해 온 덕목인데, 이를 태권도 정신에 적용하여 태권도인이라면 응당 지녀야 할 덕목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수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닦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의 질서와 조화 유지에 동참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바탕이 태권도 정신에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겨루기에 치우쳐 있는 태권도 수련에 있어서 동양사상의 전통인 ‘심신일여(心身一如)’ 사유의 바탕 위에 정신적 영역의 수련도 강화해서 정신과 육체를 함께 아우르는 참된 수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sup>111)</sup>

반면 이재돈은 최홍희의 태권도 5대 정신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강함’, ‘빠름’, ‘정확’, ‘공정’, ‘예의’, ‘인내’, ‘조화’, ‘만족’의 8가지의 태권도 정신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무예적인 측면에서 태권도 정신과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태권도 정신을 접근하는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무예로서 태권도 정신은 강함(強 · Strength)과 빠름(速 · Speed), 정확함(正 · Accuracy)으로 구분하였다. 강함은 생사가 달린 극한 상황에서 신체의 강함, 승리와 삶에 대한 강한 의지, 기백의 강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빠름은 몸의 민첩성과 신속한 판단력 그리고 빠른 결단력을, 정확함은 상대방의 허실을 정확히 판단, 동작의 정확함 등을 말하고 있다. 이어 그는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정신을 ‘공정함’, ‘예의’, ‘인내’, ‘조화’, ‘만족’으로 도출한 것이다. ‘공정함’은 싸움(겨루기) 등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겨루고 판정하는 것을, 예의는 겨루기 등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인내’는 신체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정신을, ‘조화’는 기술을 최대한 살려 구현하는 것을, ‘만족’은 기술의 습득 등을 통한 마음의 흡족함을 말한다.<sup>112)</sup>

안용규는 태권도 정신을 우리 전통의 ‘한’철학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평화정신’·‘애국 정신’·‘충효 정신’·‘예의 정신’·‘부동심’·‘극기 정신’·‘준법 정신’·‘호연지기’ 등으로 이해했다. ‘평화정신’은 분열과 대립을 허용치 않는 정신으로 우주가 흰색으로, 흰색 태권도 도복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애국 정신’은 태권도 수련의 단계에서 태극기에 대한 맹세나 예(禮)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함양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사범에

111) 전병술·노영선, 「전통 사상의 구현 관점에서 바라 본 태권도 정신」, 『한국문화연구』 22, 2012, 119~141쪽.

112) 이재돈, 「무예와 스포츠, 그 행위의 본질에 기반한 태권도 정신」, 『국기원 태권도연구』 2-1, 2011.

대한 예나 상급자에 대한 예 등은 ‘효(孝)’의 발로로서 ‘충(忠)’의 시작이요 존경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어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예에서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는 예시예종(禮始禮終)은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태권도를 통해 존경심의 발로로서 사제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의’, 도장에서 띠의 차이 즉 수련기간에 따른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의에 주목했다. 그는 태권도 수련 상황에서 부동심이 체득될 수 있다고 봤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바른 지혜 기본 동작들은 수 없이 많은 연습과정을 되풀이함으로서 극기심을 배양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루는 ‘성기(成己)’에 이르러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호신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어 ‘호연지기’를 세울 수 있으며, 자기 극기를 통해서만 기술의 완성을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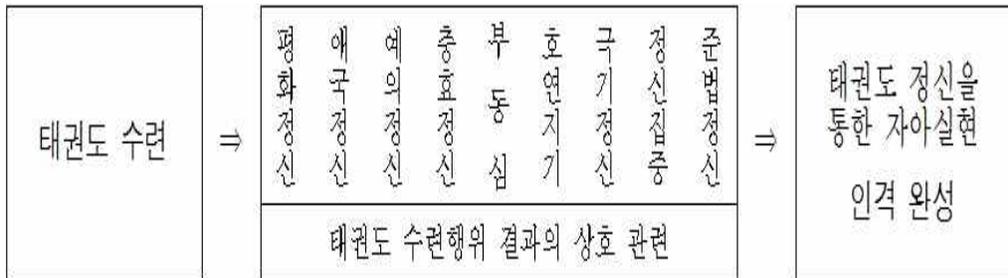


그림 6. 안용규가 설정한 태권도 수련과 정신의 관계

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태권도의 기술 동작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극한을 뛰어 넘도록 자기를 극복하고 수련하는 것이 태권도의 정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품새 수련에서 뿐만 아니라 겨루기 시에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규칙 준수의 행위가 사회로 전이되었을 때 사회에서의 준법정신을 함양해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sup>113)</sup>

안용규가 언급한 ‘한’사상은 우리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축적한 우수한 문화와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

113) 안용규, 『태권도 사관정립과 태권도정신에 관한 연구』, 대한태권도협회·연구개발위원회, 1998; 『태권도 역사·정신·철학』, 21세기 교육사, 2000, 105~121쪽.

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의 태권도 정신은 단순히 전통적인 사상과 연결시키는 것을 벗어나 수련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견해들에서도 태권도 수련과 ‘한’ 사상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엿보인다. 하웅의는 태권도 수련 과정을 통해 ‘애국과 평화정신’ · ‘충·효·예 정신’ · ‘부동심’ · ‘극기정신’ · ‘준법정신’ · ‘호연지기’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철학을 ‘한’의 주체로서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인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태권도를 연마한다는 것은 우주론적 체계인 ‘한’의 원리와 철학적인 원리로서 ‘한’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했다.<sup>114)</sup>

이경명도 ‘한’철학과 태권도의 정신을 연결짓는 등의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이경명이 생각하는 ‘한’철학의 핵심은 ‘태극(太極)’이었다. 이 태극은 홍익인간 이념을 형상화한 징표로, 홍익인간의 이념인 삼극일체(三極一體) 사상에서 발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태권도는 구체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신체의 움직임은 마음과 몸이 하나인 상태로 일체성에 초점을 둔다. 즉 태권도를 연마한다는 것은 우주론적 체계인 ‘한’의 원리와 철학적인 원리로서 ‘한’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봤다. 즉 태권도의 ‘한’철학은 ‘한’의 주체로서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인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sup>115)</sup> 하지만 이 견해는 그가 핵심으로 삼는 ‘한’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준다. 모든 원리를 태극으로 여겨지는 ‘한’에 두었는데, 이 개념은 태권도 동작 등의 기법 원리로서는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태권도 정신으로 받아드리기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아쉬움은 ‘한’사상 혹은 ‘한’철학과 관련된 논의들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간행한 『태권도 역사·정신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진다. 그 내용을 보면,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 수련상황에서의 예절과 규칙, 태권도의 직접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이거나 상징적 내용으로부터 태권도 정신이 추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태권도 정신을 동작과 기상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부터는 ‘정직 정신’ · ‘극기 정신’ · ‘신동(愼動) 정신’ · ‘중절(中

114) 하웅의, 『태권도 총론』, 가림출판사, 2003, 35~37쪽.

115) 이경명, 『태권도』, 대원사, 1997; 『한국 전통무예의 철학 태권도』, 형설출판사, 2000; 『태권도의 바른 이해』, 상아기획, 2002.

節) 정신'·'정의 정신'을, 예절과 규칙에 나타난 특징으로부터는 '애국정신'·'충효정신'·'예의정신'·'준법정신'·'평등정신'을,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 나타난 특징으로부터는 '평화 정신'·'조화(調和) 정신'·'합일 정신'·'창조 정신'·'약속 정신'을 추출해 냈다. 신동은 움직임에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중절은 타격의 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sup>116)</sup>

이외에 수련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어 정신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예종이는 『최신탈권도』에서 태권도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다른 투기나 스포츠와는 달리 정신도야와 인격형성을 필수요소로 하는 무술로서 태권도의 수련과정에서 유발되는 각가지 장면에서 인내력, 자제력, 용기, 담력, 겸양, 관용의 미덕을 배양하고 희생정신과 협동심 및 애국애족심을 함양하게 된다. 즉 태권도를 올바르게 수련하면 신체의 단련은 물론 예의와 겸양을 갖춘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과 공명정대하여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고 정정당당하게 용기를 발휘하여 약자를 보면 도우는 희생정신과 협동심을 배양하게 되고 자제력과 자신력을 길러주어 창조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화랑도정신과도 일맥상통하며 그 본질이 심신일체주의로서 수련목표가 신체단련과 병행하여 인격완성에 있고 태권도정신이 도장에서 사회로 전이될 때 이는 곧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의 정신이 될 것이다.<sup>117)</sup>

태권도를 스포츠와 구분을 하면서, 수련을 통해 인내력과 자제력 등을 배양한다고 하였다. 물론 그 또한 화랑도 정신과 태권도 정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류병관도 태권도의 수련을 통한 정신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태권도수련은 기술발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 속에서 정신이 형성되고 주어질 정신성은 수련과정 속에서 형상화된다고 보았는데, 그는 수련과정 속에서 신적 능력의 강화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수련을 통해서 정신적 능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태권도 정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태권도 정신은 수련 중에 수많은 동작 중 쓰임이 맞는 적절한 동작을 바르게 쓰는

116) 이규석 · 이승환 · 한형조 · 안용규 · 나영일 · 노영구, 『태권도 역사·정신에 관한 연구』, 태권도진흥재단, 2006, 282~299쪽.

117) 芮鍾二, 『最新跆拳道』, 螢雪出版社, 1987, 16~17쪽.

것(道理), 상대와의거리, 속도, 공간적 변화, 상대의 의도, 움직임, 자세 등에 맞춰 그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正道),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지대로 동작을 과감하게 실행(實行)하는 것이 수련 과정 속에 배어 있고, 수련의 반복으로 정신이 강화된다고 이해했다. 태권도 정신을 일컬어 ‘도리를 지키는 마음’ 혹은 ‘정도(正道)의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대와의 겨루기 혹은 품새 기술 동작의 구사에서 정확하고 알맞은 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태권도 본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논했다.<sup>118)</sup>

김영선은 『1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 교재』에서 태권도 정신의 명칭으로 ‘삼도오덕(三道五德)’을 제안하였다. ‘삼도’는 태권도의 이념을 담은 항목으로 ‘홍익인간’을, 태권도의 기술 이념을 담은 ‘삼재강유’를, 수련을 통해 인간 내면 의식의 확장을 말하는 ‘심기합치’를 말하며, ‘오덕’은 ‘수련오덕’을 줄인 말로 개인적 사회적 성품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예의’, 참을성 또는 끈기를 말하는 ‘인내’,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말하는 ‘용기’, 사사로움 없이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공평무사’, 대자연의 기운을 축적함으로써 넓고 관대한 마음을 발휘하는 ‘호연지기’를 가리킨다. 그는 이 ‘삼도오덕’이 태권도 수련자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는 것이라 언급했다.<sup>119)</sup>

이와 관련해 송형석은 태권도의 정신은 태권도 기술과는 달리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기술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외형을 지니지만 정신은 그 실체를 직접 볼 수 없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태권도정신과 관련 의미는 태권도 정신과 관련 용어의 사용이 추상적이고 각기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여 매우 다양하며 형이상학적이므로 태권도정신을 해석하기 어려웠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송형석은 기존에 언급된 태권도정신들을 수합하고 분석하여 ①기술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 ②심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 그리고 ③윤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으로 구분하였다. ①기술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은 기술의 효율성과 완벽성 또는 공방기술의 자동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경우에는 류병관과 지치환이 말한 ‘도리를 가지고 정도를 실행하는 것’

118) 류병관 · 지치환. 「태권도 수련의 정신화 과정」 『대한무도학회지』 9권 2호, 2007, 81~96쪽.

119) 김영선, 「태권도 정신론」 『1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2011.

과 이창후의 ‘삼재강유’도 부분적으로 해당한다고 봤으며, 태권도 정신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김용옥이 제시한 ‘허실의 원리’나 양진방이 제안한 ‘강유의 원리’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②심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은 기술의 습득과정에서 얻어지는 심리적 특징들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면서, 최홍희의 ‘인내’, ‘극기’, ‘백절불굴’, 태권도교본 및 국기원 홈페이지의 ‘무언실행’, ‘무실역행’, 안용규의 ‘극기’, ‘성실’, 이경명의 ‘심신일여’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 ③윤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은 순수한 이념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기술 수련과는 무관하고, 지도자의 훈시나 모범적 행동 또는 언어적으로 명시된 관훈이나 윤리강령을 통해 제시되는 가치나 덕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것들에는 ‘예의’, ‘결백’, ‘홍익인간’, ‘준법성’, ‘애국’, ‘충효’ 등의 덕목이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그는 기술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기술의 원리로 부르는 것이 이해하기가 용이하며, 심리적 차원의 태권도 정신 역시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길러지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하면서, 수련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각종 도덕규범 즉 윤리적 규범들로부터 태권도 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윤리적 차원의 태권도정신을 참된 의미의 태권도정신으로 보면서, 태권도정신의 구체적 덕목으로서 ‘절제’·‘명예’·‘개방’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절제’란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으로써 제어한다는 의미를, ‘명예’란 전통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존경과 권위를, ‘개방’은 포용 태도를 가지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sup>120)</sup>

하지만 그의 논의 또한 기존의 태권도 정신에 다른 항목을 더한 정도에 그칠 뿐 더 이상의 설명을 하기 어렵게 한다. 그것이 태권도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국기원에서 2012년에 발간한 태권도와 인문과학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태권도 정신의 내용이 태권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sup>121)</sup>라는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해 보면, ‘홍익인간’이나, 불교·유교·동학 등의 전

120) 송형석 · 나채만,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한국학술정보, 2011; 송형석,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20권 1호, 2012, 184~195쪽.

121) 이창후·김방출·정근표·우정권, 『태권도와 인문과학』, 국기원, 2012, 148쪽.

통사상을 태권도 정신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태권도 정신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은 각기 주장하는 것들 또한 각양각색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수많은 태권도 정신의 존재는 그 것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을 바꾸어 이야기 해보자.



## IV . 맺음말

## IV. 맺음말: ‘태권도 정신’의 흐름과 그 기준

### 1. ‘태권도 정신’의 흐름

앞서 살펴본 대로, 태권도 정신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각기 주장하는 것들 또한 각양각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너무나 많은 용어들을 태권도 정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태권도 정신의 존재는 그것이 그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태권도 정신을 언급한 견해들 가운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 사상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이 논의들은 대부분 ‘홍익인간’ 등의 전통 사상을 ‘한’사상이나 ‘한’철학 또는 ‘한’정신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태권도 정신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이 얻게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 논의들은 ‘한’사상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태권도 정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 ‘한’사상과 태권도의 연결 고리가 그리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리하게 태권도 정신을 ‘한’사상과 연결시킨 시도들은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과 궤를 같이한다. 태권도가 가라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숨기거나, 혹시나 있을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과도하게 전통사상과 연결시키려고 한 것이다. 초창기 가라테 수련 경험이 있는 모체관의 창설자나 관장들은 ‘태권도는 선수가 없다’는 가라테의 기본 정신을 자연스럽게 태권도의 정신으로 언급을 하고는 했는데, 태권도가 전통무예라고 규정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태권도는 전통무예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상과 태권도 정신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만이 가진 정신의 도입이 필요했고,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화랑도 등의 여러 가지 정신을 차용해 태권도 정신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련을 통한 정신의 체득이라는 태권도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전통사상이 태권도 정신으로 탈바꿈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념의 도입이 태권도 수련을 통하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태권도 정신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는 자신하기가 어렵다.

태권도 정신이 다양하게 제시된 또 다른 하나는 태권도 단체의 분열과 관련이 깊다. 공식적인 태권도 정신은 초창기 최홍희의 노력에 의해 정착된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의 5대 정신이었다. 하지만 최홍희가 창설한 국제태권도연맹과 정치적인 문제로 대한태권도협회와 갈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제태권도연맹이 캐나다로 본부를 옮긴<sup>122)</sup> 이후부터는 더 이상 5대 정신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결끄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태권도연맹이 세계태권도연맹과 대결을 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 국기원을 포함한 국내 태권도계에서는 최홍희가 제안한 5대 정신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그로 인해 이를 대체할 개념들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태권도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견해를 다양하게 발표하며, 태권도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1987년에 국기원이 간행한 『태권도 교본』은 ‘홍익인간’이나 ‘화랑도 정신’ 등을 채택하며 전통사상과 태권도 정신의 연관성을 공론화했던 것이다. 이후 태권도 정신의 지침 역할을 담당하였다.

태권도 정신에 여러 개념들이 거론된 또 다른 이유는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기인한 점도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50년대에는 태권도를 무예로 인식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무예보다는 체육(스포츠)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스포츠로 인식이 바뀌지는 못했다. ‘무예 스포츠’라는 용어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무예인가 체육(스포츠)인가 하는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인식의 혼란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다. 1950년대는 무예라는 측면에서 ‘일격필살’을 전제한 후, 그것이 갖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인격도야와 관련된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데 반해, 1960년대 이후에는 시합화가 대세로 정착되면서는 체육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스포츠 측면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태권도 정신의 예가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122) 허인욱,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167쪽.

가장 기본적으로는 겨루기에서 반칙을 하지 않거나, 판정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선택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까지도 태권도 정신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 정신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의 존재는 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권도 정신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태권도 정신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태권도 정신'의 정립 기준

현재 태권도 정신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23)</sup> 그런데 그에 앞서 무예 혹은 체육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태권도가 경기화가 되면서 스포츠적 가치가 태권도의 정신으로 원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무예로서의 가치가 우선일지, 스포츠적 가치가 우선일지는 개인마다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예로서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태권도는 경기화가 되면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권도의 성장에 경기화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다. 태권도 시합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 위주로 수련이 이루어지면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법들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으며, 그것이 태권도의 위상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성인 수련생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만들어 냈다. 이는 더 이상 태권도가 성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태권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수련자까지도 포함하는 정체성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수련생들에게도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123) 김영선은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 무예이자 세계적 위상을 갖추에 따라 명확한 사상적 기반이 필요하고, 무도 가치관의 확립해야 하며, 심도 있는 태권도 교육의 기초 근거를 제공하며, 이상적인 태권도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인 정신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영선, 「태권도 정신론」 『국기원 1급 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2011, 169~170쪽).

하는데,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무예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태권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기법을 포괄할 수 있고, 아울러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용어가 스포츠보다는 무예이기 때문이다. 무예에서도 수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겨루기가 존재하므로 스포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즉 무예의 하위 개념에 스포츠적 가치를 부여하면 무난한 것이다. 즉, 태권도 정신은 무예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듯하다.

태권도 정신의 정립과 관련해 그 조건을 제시한 것은 김우창의 「태권도정신 정립을 위한 모색」에서 비롯된 것인 듯하다. 김우창은 태권도 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①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의미성).’, ② ‘태권도 행위의 본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내재성).’, ③ ‘다른 무술과 구별되는 개성을 지녀야 한다(독자성).’, ④ ‘짜임새 있는 이론 수준이어야 한다(이론성).’는 전제를 설정하였다.<sup>124)</sup> 이는 안용규도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다.<sup>125)</sup>

김영선은 태권도 공인정신론이 확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인 수준의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 기술이나 행위 본질에 근거(내재성)를 둔 바람직한 내용(의미성)이어야 하고 다른 무술사상과 구별되는 특성을 살리고(독자성) 또한 논리 정연한 이론 체계(논리적 타당성)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26)</sup> 이창후도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① ‘세계적인 보편성을 그 안에 담아야 한다.’, ② ‘한국적 문화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③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④ ‘태권도 수련과 일치되어야 한다.’<sup>127)</sup>는 것이었다. 여러 견해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준은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의미성), ㉡태권도 행위의 본질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내재성), ㉢다른 무술과 구별되는 개성을 지녀야 한다(독자성), ㉣짜임새 있는 이론 수준이어야 한다(이론성), ㉤세계적 보편성을 담아야 한다(보편성),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124) 金禹滄, 「跆拳道精神 定立을 위한 摸索」,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14~18쪽.

125) 안용규, 『태권도 역사·정신·철학』, 21세기 교육사, 2000, 79~81쪽.

126) 김영선,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태권도』 69, 1989, 133~140쪽.

127) 이창후,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학 연구』 1, 2007, 114쪽.

한다(단순성), ㉠한국적 문화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전통성)로 정리가 된다.

이 가운데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거나 세계적인 보편성을 담아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공할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개인 혹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태권도 정신으로 거론되는 많은 용어들은 보편성을 띠고 있으며,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은 태권도의 정신으로 적당할까. 하지만 이 용어들 가운데는 태권도 수련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설정한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태권도 수련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충돌을 한다. 굳이 태권도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인식이 가능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리적 차원의 정신은 태권도의 기술과 일치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sup>128)</sup>는 언급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태권도가 몸을 움직여 익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생각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명수의 언급을 보면, “태권도는 그 자체에 이미 도 즉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도나 정신이 따로 구분되어 독생(獨生)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태권도의 정신을 태권도의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정신을 수련하는 것”<sup>129)</sup>이라고 했다. 수련과 정신의 동일성을 강조한 말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언급이다.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거나 세계적인 보편성을 담아야 한다는 조건은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몸을 움직여 깨달음을 얻는 행동철학이라는 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건 가운데 태권도 정신이 단순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태권도의 정신은 고도의 복잡한 체계를 갖추는 철학(㉥)으로 만드는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한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앞서 태권도는 몸으로 체득하는 무예임을 언급했다. 수련자마다 체득을 통한 깨달음은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시간도 다르고, 깨닫는 내용도 동일할 리가 없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표와 수식

128) 한형조, 『태권도의 새 지평: 심신의 통합수련, 전통과의 접맥, 그리고 글로벌 설득을 위한 제언』(미간행 인쇄물), 2006.

129) 김명수, 「태권도의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01, 40쪽.

으로 모두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처럼 형식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너무 복잡한 정신의 개념 정리는 실제 수련자에게는 어려운 수학적 공식과 같은 것일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최소한의 개념을 설정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교육적으로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최소한의 개념만을 제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장이나 사범과의 교류 혹은 개인이 수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터득하도록 하는 어떨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앞서 언급한 ‘태권도에는 선수(先手)가 없다.’는 문구의 숨겨진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이 문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선수 즉,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없다’로 해석이 된다. 즉 남을 먼저 해하지 않는다는 평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이원국이나 윤쾌병 등도 태권도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 이원국의 언급을 보자.

이는 「태권도에는 선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태권에서는 자진해서 남과 싸우거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여실히 표현한 것으로 만물용화를 염원으로 하고 정의와 인도를 수호하는 뜻에서 호신상 피치 못 할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 태권의 위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뜻이며, 태권의 정신을 잇고 위력적인 기술을 그릇 사용하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남용을 삼가고 일상생활에서 자아를 반성 억제하여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이다. 따라서 태권의 극치에 도달하면 반드시 예의에 밝고, 공손하고 온화하며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할뿐더러 자연 자기의 쓸데없는 고집 그리고 욕망 등 모든 사념을 깨끗이 버리고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마음과 행동을 갖게 된다. 또한 「태권에는 선수가 없다」는 말의 정신은 수련의 주체를 이루는 형에도 여실히 표현되어 있다. 즉 각형의 준비 자세는 간단한 동작이면서도 거기에는 사념과 사심의 배제 정신의 정화라는 큰 뜻이 숨어 있으며 다음으로 계속되는 제2의 동작은 반드시 「막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듯 태권의 형에는 정신을 정화시키고 평화를 기본으로 삼는 동작이 있으며 바로 이것이 「태권에는 선수가 없다」는 정신과 일치하는 점으로서 태권이 「군자의 무술」이라고 불리우는 연유이다.<sup>130)</sup>

130) 李元國, 『跆拳道教範』, 進修堂, 1969, 31쪽.

이원국은 태권도를 ‘선수’가 없는 무술로 이해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개념은 가라테에서 빌려 온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와는 별개의 개념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에 일본에 유학하며 가라테를 수련했던 이들이 기본적인 정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이 형성되는 1960년대까지도 그러한 점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아울러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통해 태권도 정신을 정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논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원국은 ‘선수가 없다’는 문구를 남을 먼저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태도가 만물융화를 염원하며 정의와 인도를 수호하는 정신으로 이어진다고 봤으며, 다시 수련이 깊어지면,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해 겸손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어서 수련이 극치에 달하면, 예의에 밝고 공손하며 온화하며 원만한 인격을 갖춘 인물이 되며, 좀 더 나아가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인격을 가진 ‘군자’의 단계까지 연결된다고 받아들였다. 동양사회에서 군자는 완성된 인격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선수가 없다’라는 단순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완벽한 인격체가 완성되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원국은 ‘선수 없다’는 문구를 기술체계와도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모든 형이 공격이 아닌 방어 동작으로 시작되므로 평화 정신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무예라고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술이 모두 맞는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적어도 단순한 문구 하나로 무예의 기술과 정신을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앞서 이원국은 ‘선수 없다’라는 표현을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먼저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켰다. 그런데 이를 좀 더 고민해 보면, 먼저 공격하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반격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려는 낚새를 보였을 때는 오히려 적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거니와 방어를 한 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도에서 말하는 ‘선(先)의 선’ 혹은 ‘후(後)의 선’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더라도 제압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배양되어 있다거나, 혹은 먼저 상대방에게 선제 공격의 기회를 주더라도 제압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포함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원래부터 이러한 개념까지 포함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원국의 언급은 적어도 모든 것을 다 체계를 세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과 생각의 깊이에 따라 깨달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수련의 깊이에 따른 사고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1972년에 간행된 『태권도교본』(품세편)에서 시도된 적이 있었다. 「수련-반응력→판별력→담력→자신, 자신력→자위, 자주→자립→의연, 통솔력→용기, 협동→애족→애국」으로 변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태권도 수련을 통한 정신의 체득은 형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식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용어로 그 개념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사고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련자의 그릇 크기에 따라 체득하는 시간이나 깊이가 다 다를 터인데, 이를 명확히 언어로 규정해 주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다. 앞서 언급된 가라테의 ‘선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추후 정립될 태권도 정신이 나아가 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실마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점이 많다.

이어 다른 무예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한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독자성을 타 무예와 같지만 얹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타 무예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타 무예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편적인 개념을 차용해서 태권도 정신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타 무예와 구별되는 태권도만의 독자적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가 갖고 있는 기법의 독자적인 원리와 태권도 수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고의 확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없다면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권도 원리와 관련해 가장 널리 인정되는 것

이 ‘삼재강유’론인 듯하다.<sup>131)</sup>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삼재강유’라는 기법의 원리 속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설정하면 될 듯하다. 그것이 곧 다른 무예와는 차별화된 태권도 만의 정신이 정립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해서 얻어진 태권도 정신 안에 우리 민족만이 가진 고유하면서도 훌륭한 정서를 담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 부분은 앞서 제시된 조건 중에 하나인 한국적 문화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 무예이므로 한국적인 전통이 담겨 있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국적인 정서를 반드시 담아내는 개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듯하다. 태권도 정신에 한국적인 문화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태권도의 본질을 흐릴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몸으로 체득해야만 하는 무예는 그 특성상 동작 속에 이미 그 민족의 혼이나 정서 또는 박자가 스며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굳이 언어로 한정을 하지 않더라도 몸에서 몸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민족 특유의 정서가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한국적인 특성을 담고 있고 있으므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국 무예의 특성 혹은 정서를 태권도 정신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태권도 정신이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항목은 필수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태권도 정신의 정립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태권도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냐는 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나머지 조건들은 충족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음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정립될 태권도 정신은 ‘단순하면서도 태권도의

131) 이창후, 『태권도 삼재강유론』, 상아기획, 2003.

이경명도 태권도 기법의 원리를 ‘천(天)’·‘지(地)’·‘인(人)’의 삼극으로 이해했다. 이 삼극은 삼재라가도 하는데, ‘원(圓)’·‘방(方)’·‘각(角)’의 원리에 태권도 기법에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원은 회전으로 움직이는 기, 방은 서리로서 기저면을, 각은 팔의 형상으로 기라고 봤다(이에 대해서는 이경명, 『태권도』, 대원사, 1997; 『한국 전통무예의 철학 태권도』, 형설출판사, 2000; 『태권도의 바른 이해』, 상아기획, 2002 참조).

본질을 꿰뚫는 것'으로,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개념 또는 문구면 적당할 듯하다. 그리고 이 정의는 수련의 깊이에 따라 그 의미를 새롭게 음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

앞서 관 통합 이전에 각 관에서 사용한 '성실'·'창의'·'노력'·'무실'·'성의'·'정의'·'성실'·'인내' 등의 관훈은 태권도의 독자적인 정신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굳이 태권도 수련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식이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각 관의 창설자나 연구자들이 제시한 많은 정신들은 태권도의 본질을 꿰뚫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도장에서 수련자들이나 사범 이상의 선생들이 지켰으면 하는 개념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위의 '태권도 정신'이라기보다는 '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알 수 있다. 모체관 혹은 9대 관의 관훈은 태권도 정신으로 언급한 것들도 올바른 수련을 하기 위한 자세의 조건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수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상위 개념의 '태권도 정신'과 그 정신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서 태권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위 개념의 태권도 수련 원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수련 원칙은 수련자가 가져야 할 수련 과정에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권도 지도자들이 수련생을 가르치는 기준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관훈'들 가운데 '노력'이나 '성실'과 같은 관훈은 태권도 수련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들이고 '무언실행'이나 '공평무사'와 같은 것들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들이다. 즉 수련자는 태권도 기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숙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수련해야 한다. 반면 지도자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기술 습득이 이루어진 이들로, 이제는 자기 수련 외에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즉, 지도자들은 수련생들에게 말보다는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무언실행'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갖지 않고 지도를 하는 '공평무사'한 마음씨를 가져야만 한다. 보편적인 개

념이지만 ‘태권도인의 자세’로서는 그리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즉 수련자는 배우고 수련하는 입장에서, 지도자는 앞서 수련을 했으며, 앞으로도 가르치며 수련을 해 나갈 사람으로서 갖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상위 개념인 ‘태권도 정신’과 하위 개념인 ‘태권도인의 자세’의 구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sup>132)</sup>

---

132) 상위 개념인 ‘태권도 정신’에 도달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태권도인의 자세’를 나누어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관훈들도 태권도 정신을 간결하게 전달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올바르게 태권도를 수련하고 도장의 문화를 바르게 하기 위한 개념들을 나열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후 태권도 수련자들에게 요구되는 ‘태권도 수련인의 자세’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태권도 지도자 수칙’ 등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다만 태권도를 수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지도하는 데에 좀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기석, 『태권도 半世紀 인물과 역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01
- 강원식·이경명, 『태권도 現代史』, 보경문화사, 1999
- 국기원, 『태권도 교본』, 오성출판사, 1987
- 『경향신문』 1962년 10월 30일
- 『계간 태권도』 1, 1971
- 『계간 태권도』 2, 1971
- 『계간 태권도』 37, 1983.
- 김갑수, 『태권도 이론 및 실기』, 홍경, 2003
- 金光成·金耕知, 『韓國 跆拳道史』, 慶雲出版社, 1988
- 김기홍·한국선·김동규, 『태권도의 역사철학적 탐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 김용옥,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1990
- 김철, 『태권도 교육론』, 원광대학교 출판국, 1960
-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교본』, 1972
- 『동아일보』 1963년 10월 16일자
- 『武藝時報』 1958년 9월 1일자
- 朴哲熙, 『破邪拳法』, 講德院士道會 泗雲塾, 1958
- 배영상·송형석·이규형, 「태권도의 개념」 『오늘에 다시 보는 태권도』, 이문출판사, 2002
- 송형석·나채만,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한국학술정보, 2011
- 안용규, 『태권도 사관정립과 태권도정신에 관한 연구』, 대한태권도협회·연구개발위원회, 1998
- 안용규, 『태권도 역사·정신·철학』, 21세기 교육사, 2000
- 『月刊中央』 1994년 12월호
- 이경명, 『태권도』, 대원사, 1997

- 이경명, 『태권도의 바른 이해』, 상아기획, 2002
- 이경명, 『한국 전통무예의 철학 태권도』, 형설출판사, 2000
- 이경명, 『태권도』, 형설출판사, 2000
- 이경명 · 서민학 · 김주연 · 조춘환 · 정현도, 『태권도학』, 세계태권도연맹, 2009
- 李敎允, 『百萬人의 跆拳道教本』, 토픽出版社, 1965
- 이규석 · 이승환 · 한형조 · 안용규 · 나영일 · 노영구, 『태권도 역사 · 정신에 관한 연구』,  
태권도진흥재단, 2006
- 李元國, 『跆拳道教範』, 進修堂, 1969
- 이창후,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상아기획, 2003
- 이창후, 『태권도의 삼재강유론』, 상아기획, 2003
- 이창후 · 김방출 · 정근표 · 우정권, 『태권도와 인문과학』, 국기원, 2012
- 이호성, 『한국무술 미대륙 정복하다』, 스포츠조선, 1995
- 芮鍾二, 『最新跆拳道』, 螢雪出版社, 1987
- 정찬모, 『태권도』, 문교부, 1976
- 최상진 · 고봉수, 『태권도 개론』, 신아출판사, 2005
- 崔碩男, 『拳法教本』, 東西文化社, 1955
- 崔泓熙, 『跆拳道教本』, 誠和文化社, 1959
- 崔泓熙, 『跆拳道教本』, 誠和文化社, 1966
- 최홍희, 『태권도지침』, 정연사, 1966
- 최홍희, 『태권도교서』, 정연사, 1972
- 한병철, 『고수를 찾아서』, 영인문화사, 2003
- 하웅의, 『태권도 총론』, 가림출판사, 2003
- 黃琦, 『花手道教本-花郎徒와 唐手道-』, 朝鮮文化教育出版社, 1949
- 黃琦, 『唐手道 教本』, 契郎文化社, 1965
- 황기, 『수박도대감』, 삼광출판사, 1970
- 허인욱,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한국학술정보, 2008
- 富名腰義珍, 『琉球拳法 唐手』, 榕樹書林, 1922
- 富名腰義珍, 『鍊膽護身 唐手術』, 榕樹社, 1925
- 富名腰義珍, 『空手道教範』, 廣文堂書店, 1941
- 小島一志 監修, 『格闘技 必殺技 53』, ナツメ社, 1997

- 岩井虎伯, 『本部朝基と琉球カラテ』, 愛隆堂, 2000  
 遠山寛賢, 『空手道入門』, 鶴書房, 1933  
 坂上隆祥 著·姜泰鼎 譯, 『공수도백과』, 서림문화사, 2002

## 논문

- 권혁중, 「한국의 얼과 태권도 정신」 『韓國레저스포츠學會誌』 3, 1999  
 김명수, 「태권도의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01  
 김영선,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태권도』 69, 1989  
 김영선, 「태권도란 무엇일까요」 『태권도』 92, 1995  
 김영선, 「태권도 정신론」 『국기원 1급 지도자 연수교재』, 국기원, 2011  
 金禹滄, 「跆拳道情神 定立을 위한 摸索」,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김중식, 「跆拳道 武道精神의 考察: 三國時代를 중심으로」,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김홍석, 「한국전통사상을 통한 태권도정신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慶州大學校 論文集』 14, 2001  
 류병관, 「태권도 수련가치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7, 1996  
 류병관·지치환, 「태권도 수련의 정신화 과정」 『대한무도학회지』 9권 2호, 2007  
 방연진·곽정현, 「무술, 무예, 무도에 내재되어 있는 태권도 정신」 『체육학 논문집』 33, 2005  
 송형석·이규형, 「태권도 개념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권 3호, 2005  
 송형석,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20권 1호, 2012  
 신창화,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94  
 안영찬, 「한국 태권도 정신의 시대별 변천 과정」, 용인대학교 태권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楊鎮芳, 『解放 以後 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 競技 跆拳道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오노균, 「김유신과 화랑정신이 현대 태권도에 미친 영향」 『세계태권도학회지』 3, 1999
- 李圭錫, 「東洋思想과 跆拳道情神에 관한 考察」 『體育科學研究論叢』, 1993
- 이재돈, 「무예와 스포츠, 그 행위의 본질에 기반한 태권도 정신」 『국기원 태권도연구』 2-1, 2011
- 이진수, 「무도의 차원에서 본 태권도」 『일본무도연구』, 교학연구사, 1999
- 이창후, 『태권도의 삼재강유론』, 상아기획, 2003
- 이창후, 「태권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신」 『태권도학 연구』 1, 2007
- 이창후, 「태권도인의 덕윤리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4-3, 2013
- 전병술·노영선, 「전통 사상의 구현 관점에서 바라 본 태권도 정신」 『한국문화연구』 22, 2012
- 정근표, 「태권도 사론(史論)의 Text적 접근」,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세구, 「청소년 인성교육 목표로서의 세계태권도정신 연구」 『서울대師大論叢』 66, 2003
- 정용익, 「현대 태권도사 정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문헌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영렬·전정우, 「태권도사 정립방향에 대한 고찰」 『체육과학논총』 10, 1997
- 河泰殷, 「韓國傳統思想과 跆拳道 情神에 關한 研究」,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 한형조, 『태권도의 새 지평: 심신의 통합수련, 전통과의 접맥, 그리고 글로벌 설득을 위한 제언』(미간행 인쇄물), 2006
- 허인욱, 「한국 전통 맨손무예사」 『국기원 2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 교재』, 국기원, 2011

## 태권도 9대관 정신 및 기존 정신 리뷰 연구

---

2014년 12월 26일 발 행

발 행 처 : 국 기 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 페이지 : [www.kukkiwon.or.kr](http://www.kukkiwon.or.kr)  
<http://research.kukkiwon.or.kr>

전 화 : 02) 553-5651

F A X : 02) 3469-0189

E - m a i l : [research@kukkiwon.or.kr](mailto:research@kukkiwon.or.kr)

---

이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국기원에 있으며, 국기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